

# 교과서 연구

제 34 호

2000. 6

자 레

- 발행인 / 김효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재복
- 위원 / 광상돈, 김만곤, 김정호,  
이경환, 이승구
- 간사 / 최해홍

## 권두언

2000년대 교과서의 위상과 역할/김효수 ..... 4

## 특 집

### 교과서 자유 발행 도서 제도의 의의와 방향

교과서 자유 발행 빠를수록 좋다/곽병선 ..... 6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의의와 전제 조건/김정호 ..... 10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이소영 ..... 14

21세기 정보 사회의 '열린' 교과서/김송미 ..... 19

예술 분야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김춘일 ..... 26

## 현장 교육

좋은 수업 전개를 위한 교과서 내용 분석 재구성 활용 사례  
/이석주 ..... 31

## 논 단

정보화 시대 도래에 따른 교과서의 성격과 기능의 재조명  
/양미경 ..... 43

수준별 교육 과정의 도입에 따른 교과서의 성격과 기능  
/김왕근 ..... 49

## 나의 제언

내가 바라는 교과서/최윤희 ..... 55

\* 『교과서 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 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연재

북한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 제도/한만길	58
-----------------------	----

## 편수 행정의 발자취

도덕과 교과서 개편/안귀덕	62
체육과 교과서의 변화된 모습/한형식	66
영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반성/김택기	71
교과서의 신편·개편·수정 업무는 모두 어려운 일이었다/허강	75

## 단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조난심	80
교과서가 재미없는 이유/김주환	86

## 연구 과제

교과용 도서 정가 결정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90
특수 학교 교과용 도서 체제·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91

## 자료

중학교 1학년 2종 도서 재검정 추진 일정	92
-------------------------	----

● 연구원 소식	93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94
● 원고 모집	95
●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96

## 2000년대 교과서의 위상과 역할

김 호 수

한국교과서연구원장

‘교과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고나 할까. 학창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철모르는 초등 학교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의 고등 학교 때까지 학교 생활에서의 교과서는 그야말로 유일한 학습 수단으로 그 위치를 지켜 왔다. 특히,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 60년대 이전 학습 참고서가 부족했던 그 시절의 교과서는 더없이 중요한 지식의 원천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육 과정에 따라 편찬되어져 교사에게는 학생 지도의 지침이 되고, 학생에게는 학습할 내용의 중심이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교과서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교과서의 역사는 바로 그 나라의 교육과 문화의 발달사라고도 할 수 있겠다.

우리 나라는 1800년대 말 각급 학교가 세워지고 이른바 신교육이 시작되면서 교과서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한일 합방에 의한 일제 통치로 우리의 교과서는 역사적

으로 치욕적인 시기를 맞게 되었으며, 광복과 더불어 우리 글을 되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국어 보급에 힘을 기울이면서 교과서 개발에 기초를 닦는 작업이 이어져 제1차 교육 과정기부터 오늘날 제7차 교육 과정기에 이르기까지 교과서는 형식과 그 내용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2000년대 우리 앞에 펼쳐진 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교과서도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변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사회 전반이 정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구조로 변하고 있어 학교 교육에서의 교과서의 역할과 기능 또한 변해야 될 것이다.

이미 현행 교과서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찌면 시대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반성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교과서 가격은 정부의 저물가 정책이나 교육 재정

**정보화 시대의 교과서는 정보 통신 매체에 밀려 초라한 위치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 정보화라는 강력한 보완 수단을 갖춘 교과서로서  
모든 교육 자료 중에서 으뜸이 되며, 제몫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질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

형편이 고려되고 발행사 간의 과당 경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가 통제 위주로 결정함으로써 저가격 체제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교과서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여겨진다.

과거에는 교과서만 가지고도 가르치고 배우는 데 문제 없이 잘 지내 왔지만 지금은 모든 상황이 그 때와 많이 다르며 지식 정보량도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보의 양이 1년에 2~3배씩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변화를 외면하고 옛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지 않은가?

컴퓨터, TV, 비디오 등 전자 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은 정보와 지식의 습득에 있어 오히려 교사들보다 더 빠르다. 학생들은 앞서 가고 있고 알고 싶은 것 역시 최첨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과 과정이나 교과서는 아직도 구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것은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격변하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의 위상과 역할도 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적어도 그 존재의 가치를 잃지 않고 국가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000년은 제7차 교육 과정이 적용되어 교과서가 개발·보급되기 시작하는 첫해로서 쉽고 재미있으며 친절하고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교과 단위별로 집필자 실명제를 도입한다든가 전자 교과서의 개발, 교과서의 다양화·고급화를 통한 질 향상과 각계 각층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 교사·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환영받는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의 교과서는 정보 통신 매체에 밀려 초라한 위치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 정보화라는 강력한 보완 수단을 갖춘 교과서로서 모든 교육 자료 중에서 으뜸이 되며, 제몫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질 좋은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과서연구원은 민간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교과서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해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 우리 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모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과서 자유 발행 빠를수록 좋다

곽 병 선

한국교육개발원장

## 1. 통일된 교과서로 교육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이유

**필**자는 1986년에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의 장기 발전 방향은 자율 발행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1994년에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학술지에 관련한 몇 편의 논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 자유 발행제 교과서로 가는 길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최근 초등 학교 영어 교과서를 검정제(본 글에서 국정제 교과서는 1종 교과서, 검정제 교과서는 2종 교과서와 같은 뜻으로 구분 없이 쓰고자 한다)로 발행했다가 발행사의 난립으로 출판사의 이윤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개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 간 서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는 경우 영어의 기초를 쌓는 데 있어서 통일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7차 교육 과정부터는 국정제로 변경된 예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초등 영어 교과서가 이처럼 기존의 고식적인 국정제로 되돌아간 데 동원된 아이디어는 현실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율, 창의, 다양성을 기르는 교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만큼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을 결정하는 철학적 기초는 매우 빈곤하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과서와 교육의 장기 효과 관계를 보는 시야가 넓고 깊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통일된 교과서로 모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창의성 있는 교육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통일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친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하고, 창의성을 가로막는 주범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 기초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문제인데, 설사 통일된 기초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학습 교재로 제시하는 자료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심각하게 검토해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어의 기초를 길러야 할 초등 영어의 경우, 그 기초는 획일화된 교과서를 통해서 길러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초 영어인지에 대한 영어과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 설정과, 이를 학습에서 적용할 교사의 전문성을 통해서 길러져야 할 과제이다. 국정 교과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

**통일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친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하고,  
창의성을 가로막는 주범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람이 만드는 한 만든 사람의 주관적 의지가 반영된다.

왜 모든 학교 교사가 동일한 교과서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서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교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통일된 교과서 덕택에 교사들은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교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편하고 좋은 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것은 주어지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는 말단적 단순 기능인으로 교직을 자리매김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교과 학습에서 무엇이 기초인가에 대하여도 마치 통일된 학습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재검토하여 볼 일이다. 대체로 교과 학습의 기초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어야 될 것이지만 언제나 고정 불변하게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일 교과 영역에서도 무엇이 기초이고 기본인지는 학자들 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협상에 따라 변전하는 것이고, 학과에 따라 기초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지식 정보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성은 학문분야의 기초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특별히 21세기 지식 사회에서는 기존의 지식이나 이론을 중요한 기초로 삼기보다는 새로운 지식 생성력을 중요한 기초로 포함시키도록 변모하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안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내려야

할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가설을 수립하거나 가장 타당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여러 대안을 구안해 보고 그 가운데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된 대안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 등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력이 학습의 기초로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교과서를 통일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과정도 교과별로 통일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나 교육 과정을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여러 복수의 교육 과정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향후 급속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 정보 사회에서 알맞은 교육 과정 및 교과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정 교과서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집필자로 동원할 수 있으므로 복수 교과서 발행 제도보다 우수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소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신빙할 수 있는 주장은 못 된다.

오늘날 각 학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란 그렇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정해진 대상이 아니다. 동일 학문 분야 내에서도 전문가들이란 상호 경쟁적 관

계로 존재하며, 한 교과 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란 어느 특정인들로 고정되게 대표될 수 없다.

따라서, 최고의 전문가들이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필 의뢰를 맡길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나 의사 결정자가 선택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여러 집필 가능한 전문가 중의 일부일 뿐이지 교과 교육 분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정도의 일은 누구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는 성질의 일로, 어느 특정 전문가가 아니면 좋은 교과서가 개발되지 못할 일은 결코 아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교과서를 통일시키고, 이 교과서의 내용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교과서의 권위를 높이고 교과서 중심 관행을 만든다. 이것은 무엇이 흑과 백, 선과 악, 지식과 무지가 무엇인지 고정되어 있어서 누구에게나 이의 없이 수용하도록 하는 교육에서는 효과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뇌 교육이다. 교과서를 통제하고 있는 나라치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육이 국가를 건진 예는 없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가장 철저하게 교과서를 통제했던 나라들이 소련 공산주의 국가들이 아니었던가?

## 2. 자유 발행제를 조기에 앞당겨야 창의로운 교육이 촉진된다

누구나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면 교과서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소비자인 학생과 교사가 좋은 교과서를 선택하는 데 여러 혼란이 있을 것을 걱정하고 교과서 값이 많이 올라 수요자의 부담이 많이 느는 것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가 지식 생성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조금도 걱정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 색다른 구성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와 취향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접근이 허용될 수 있고, 창의력 교육의 여건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 제도를 하루빨리 갖추어야 한다.

아마도 자유 발행제 초기에는 다소의 혼란이나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에 비해서 교과서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진정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학생들을 길러 내려면, 통일된 교과서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 발행제를 갖는 데 따르는 부담을 국가와 소비자는 져야 한다. 그리고 이 부담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결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담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과서값이 올라가는 것도 재활용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교과서 채택에 있어서 다소의 혼란이 예상되나 그것은 잠깐일 뿐 곧바로 소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그들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인지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 기준도 소비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과서 시장은 좋은 질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자와 이러한 기대를 따라갈 수 있는 공급자에 의해서 저절로 형성되고 경쟁을 통한 좋은 교과서의 시장 기제를 갖게 될 것이다.

필자는 다양한 교과서를 가질 수 있는 폭만큼 교육에서 창의성이 존중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다양한 교과서가 있다는 말은 학습 내용을 학습 자료로 구성하고 조직하고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만큼 여러 다른 입장들이 경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학습에서 효과를 가져 오는 교과서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과서가 다양한 경우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통일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된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야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력 평가에서 학생 누구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낡은 생각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교과서나 학습 자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고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영국의 경우 그들의 대입 제도인 GCE 시험에서 학생들은 각자 선택하여 배운 교과서별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험이 제공된다.

지금 검정 교과서라고 해서 교과별 복수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과서도 국정 교과서와 크게 다를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은 외적 평가가 단일 기준으로 모든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고 있는 경우 학생들은 교과서가 복수일수록 모든 교과서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의 부담만 더 생길 수 있다.

우리의 교과서 정책은 하루빨리 다양한 교과서가 질 향상을 위해서 경쟁하고, 소비자인 학생과 교사는 그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사이버 교육이 조만간 밀어닥칠 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정보와 지식을 국정이나 또는 국정제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지금의 검정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요인이 된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사회적 권위가 인정된 책이나 정보만을 교과서로 인정하는 제도는 변화의 흐름과 전혀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다.

국정이건 검정이건 가릴 것 없이 자유 발행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도덕, 국어, 국사, 사회 과목을 국책 과목이라 하여 특별히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시도도 개설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정제에서 교과서별 채택 비율 차이에 관계 없이 이윤을 똑같이 분배하는 현행 제도는 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 팔리지 않는 교과서는 자연히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 발행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과서 정책 개혁과 함께 교과서 출판 업계의 비상한 자율적 혁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과 같은 교과서 제도가 자리잡게 된 데에는 교과서 업계의 기득권 수호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좋은 교육, 특히 창의성, 자발성,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기르려면, 누구나 교과서를 쓸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어느 자료도 교과서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교과서를 이해하는 우리의 눈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4



#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의의와 전제 조건

김 정 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1. 교과서 발행 제도의 교육적 함의

“교과서는 교과서다워야 한다. 전통 문화와 지식 체계를 전승하는 수단인 교과서의 질이 저하되면 교육 자체의 질이 낮아진다.” (A)

“교과서는 교육 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중의 한 가지이므로,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지 말고 교육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B)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학교 중심의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다.” (C)

이 말은 우리가 흔하게 듣는 교과서와 관련된 논점이다. A는 이른바 전통적인 교과서관을 대변하는 교과서 절대론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화를 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 수단이 교과서이므로, 교과서는 보편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국가 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 권위는 국가가 개발을 담당할 때 가장 높아진다. 이는 바로 국가가 품질을 직접 보증하는 국정 교과서나 간접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검정 제도를 뒷받침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교과서를 유일한 성전으로 생각하

지 않는다면 (B) 누구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 (C)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논리, 즉 국가 사회의 요구, 시장 참여자의 자율성, 상품의 다양성이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무엇인가에 있다.

국정 교과서제는 국가 차원의 요구는 수용하지만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며, 검·인정제는 어느 정도 다양성과 국가 차원의 요구는 실현하지만 자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요구보다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선호하는 시대이므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자유 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교과서 발행 제도를 둘러싼 논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지도서’에 국한되며, 지금도 자유롭게 발행하는 교수·학습 보조 자료는 제외된다. 그러면 자유 발행제는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문제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자.

## 2.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기본 논리

교과서 자유 발행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가진 저작자는 국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과용 도서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의

**경제 논리를 교육에 도입하여 수요자가 직접  
상품의 질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그 성향에 맞추어 생산자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데에  
자유 발행제의 논거가 있다.**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가진 저작자’란 저작자와 발행인(출판사)으로 나누어 논해야 한다. 저작자는 교과용 도서라고 하여 특별한 제척(除斥) 사유를 둘 수는 없지만 관련 전공자(교사·교수 등)이면 수요자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발행인은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문광부에 등록된 출판사 대표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과 같은 검정과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자유 발행제의 핵심적인 특성이다. 그러면 이 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교육의 자율성이다. 창의성을 대전제로 하는 21세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교육권의 분권을 말한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은 필연적으로 교사에게 가르치는 자유를 주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교과서 선택 문제가 걸려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편찬한 교과서에는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여 교사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집과 같은 교과서를 직접 개발하거나 또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어떤 형태의 교재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교육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이 영에 의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는 이를 수업중 사용하지 못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51조)는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직접 허용하는 책만 사용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자유 발행제로 전환하면 이 규제가 철폐된다.

둘째, 교과서의 다양성이다. 교과서는 교과의 사실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자료가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자연 현상을 해석하고 인간 자신의 정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과 내의 패러다임 경합성과 방법 다원성 및 가치 함축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작자는 자신의 논점에 따라 남과 다른 유형의 교과서를 제작하려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응하는 길이다. 국정 교과서 개발 과정에도 많은 교사가 참여하지만 개발 책임자의 관점에 크게 의존하며, 검·인정 교과서는 일정한 기준을 준거로 심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개발하므로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여 자유 발행제는 저작자에 따른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검정 과정을 거치면 단일본인 국정보다 더 다양한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검정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유 발행제를 해야 다양성의 제 뜻을 살릴 수 있다.

셋째,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민간 부문에 대하여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하며, 그 방향은 심판자와 배려자 기능이다. 경기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과 관련된 쟁점이 있을 때 입법 취

지에 따라 시비를 가리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시장 경쟁 논리가 아닌 배려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 교과서 시장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교과서 개발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시장 질서만 엄격하게 유지하고 상품 공급은 공급자에게 맡겨 민간의 창의적인 의도를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시장 경제의 제일 원리인 경쟁을 통한 상품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즉, 경제 논리를 교육에 도입하여 수요자가 직접 상품의 질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그 성향에 맞추어 생산자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데에 자유 발행제의 논거가 있다.

### 3. 교과서 자유 발행제 시행의 전제 조건

교과서는 다른 도서와 달리 국가 사회의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어떤 형식이든 검증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보면 자유 발행제라 하여 그 자유가 무조건 절대적인 자유는 아닐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품질을 향상시킨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만약 교과서 시장에서 자유 발행제만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의 자유를 해석해 보면 자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창의적 혁신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에 자유가 필

수 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이라는 합목적성을 제일 원리로 하는 자유 발행제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역선택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논리가 교과서 시장에도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유 발행제를 시행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는 상품 공급자의 측면이다. 교과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검정 과정은 전공 교사와 교수가 모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1, 2차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내용이나 표현·표기 및 편집·디자인의 문제점은 거의 수정하게 된다. 검정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의 저작자가 중간 교정본 수준에서 심사를 청구한 것을 보면, 자유 발행제 하에서 저작자가 과연 어느 정도 자체 수정 시스템을 가동하여 완성본을 만들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전제 조건은 출판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상업성만이 아니라, 교과서라는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윤리성을 지켜야 한다. 일회용 상품은 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교과서는 그와 달라서 한 번 선택하면 최소 3년은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량품의 해악은 국가 발전을 장기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질 높은 상품을 공급하는 저작자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윤리성이 상업성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한다. 특히, 교과 철학과 자기 학문의 정도를 구현하게 되는 교과서 저자는 그 수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검증받는다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상품 수요자의 측면이다. 교과서 선택 과정의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과서 시장도 완전 경쟁 상태를 구현하기는 어렵다. 모든 책의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선택 과정에서 상품의 품질 밖의 변수도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책에 대한 정보는 선택 과정에서 교과 교사 협의회가 집중 검토하여 찾을 수 있지만, 자유 발행제 하에서 무제한으로 공급될 상품을 모두 비교하기는 실제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나 출판사라는 외적 변수가 선택의 주 변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지연과 학연이나 과거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를 보면 자유 발행제가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흘러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제도의 취지와 관계 없이 시장을 교란시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반시장적 상황을 낳기 쉽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수요자의 선택 과정 자체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의 양식과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나 학생들의 여론 등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는 정부의 측면이다. 자유 발행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정부가 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정부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여 경쟁 저해 요인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 교과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수요 측면에서 선택 과정의 부조리를 엄정하게 척결해야 한다. 자유를 주는 만큼 그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자유 발행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는 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교과용 도서의 기본 방향에 따른 이상적인 교과서 모형을 연구하여 자료를 제공

하면 좋을 것이다.

이상의 논리를 토대로 우리는 자유 발행제를 본디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낮은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 경쟁 논리보다, 교과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질적 수준이 낮은 교과서를 시장 기능에 따라 퇴출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을 제안하고자 한다.

매년 교과서별 채택률과 그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여론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상품의 판단은 다수가 소수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이 조사는 선택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정보는 질 낮은 교과서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적극적인 자율 관리 체제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교과서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교사의 선택을 절대 존중해야 한다. 올해에 ‘갑’의 책을 사용하다가 내년에는 더 좋다고 판단한 ‘을’ 책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몇 년 안에 질 낮은 교과서는 퇴출될 것이다. 그 경우에 정당한 논리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법적·윤리적 책무는 교과 교사 협의회가 모두 져야 한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는 일이다.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시행할 때 시장 기능에 따라 저작자는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질 높은 상품을 공급하고 수요자는 합목적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교과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가 명목적인 구호로 흘러 교과서의 교육적 의의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교육은 언제든지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지 실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5

##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과서 자유 발행 제도

이 소 영

인하대학교 교수

**매** 사추세츠 주의 교육 개발 센터에서 출간된 ‘교과서 활용의 극대화 방안’(1988)이라는 연구 보고서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는 많은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의 주요 도구이다. 또한,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학습 활동을 하는 시간의 75%, 그리고 교실 밖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의 90% 가량은 교과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p. 2) 이는 교과서가 교수·학습 전반에 걸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중요성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조난심 외, 1999). 따라서,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발행, 공급 및 질 관리 등과 관련된 교육부의 교과서 정책이 지니는 중요성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교과서의 발행, 공급, 관리 업무를 크게 1종 도서, 2종 도서, 그리고 인정 도서라는 세 가지 분류에 따라 계속해 왔다(교육부, 1995).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 발행 도서도 교과서 제도의 분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형이다. 자유 발행 도서 제도란 일반 출판물과 같은 원칙을 교과서 발행에도 적용하여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 발행, 채택에 관여하지 않는 형

태를 뜻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거의 실시하지 않았던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시행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법규의 개정 진행 및 일부 자유 발행 도서 선정 등이 이러한 노력의 예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많은 교과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자유 발행 도서 제도 자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용숙 외, 1995; 조난심 외, 1999). 즉, 기존의 1종, 2종, 그리고 인정 도서 제도를 통해 개발·보급된 교과서가 외국의 것에 비해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중의 다른 교육 자료보다도 외적인 면에서 질이 낮은 점 등으로 인해 교과서 관련 연구들은 자유 경쟁 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 발행 도서 제도가 교과서 질의 향상에 한몫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자유 발행 도서 제도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논의의 발단이 될 수 있는 다음의 몇 가지 관련 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최근의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질 높은 교과서 확보의 궁극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자유 발행 도서 제도를 도입하려는 우선 분야 중 하나인 외국어 교육



영역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또,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나타날 부정적 측면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 후 단위 학교별로 교사, 학부모 등이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도서를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외국어 교육에서 자유 발행 도서 제도의 필요성

현행 교과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학습자가 학습 효과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현재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어 교과목인 영어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영어의 경우 수학과 더불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 과정하에서 학생의 수준별, 능력별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대표적인 교과목이다. 즉, 수준별 반 편성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만큼 학습자들 사이에 수준차가 많이 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차는 단지 한 학급 내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학생의 능력은 지역별로,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정 환경 등의 변인으로 인해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차, 지역차 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교과서 제도에서는 복수로 발행되고 있는 검정 교과서도 그 내용과 구성 방식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18종의 고등학교 「공통 영어」 교과서를 살펴볼 때, 교과서들 간에 소재 및 내용 선정, 그리고 교과

서 구성 측면에서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은 현장 교사 및 영어 교육 관련자 대다수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검정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개발된 검정 교과서가 지닌 제한점을 벗어나 지역화된 교과서, 혹은 개별화된 교과서의 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 발행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학습 효과면의 문제점 이외에 현행 교과서 제도가 안고 있는 또다른 문제점으로 교육 내용 선정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과서는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구체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개발·시행되는 경우, 이러한 교육 과정을 잘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된 교육 과정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해석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 제도는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검정 교과서의 수는 많더라도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 결과를 낳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교과서 저자 및 출판사가 교과서 집필 지침과 같은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문서에서 지정하는 구체적인 소재와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교과서 쪽수, 어휘 수, 문장의 길이, 부록에 담아야 할 요소 등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제한이 좀더 참신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의 외국어 교육의 추세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사 소통 능력의 주요한 하부 개념인 전략적 능력을 소개하고 길러 줄 수 있는 내용은 교과서 집필 지침과 같은 공식 문서에 뚜렷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 교과서에서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미 영어 교육 분야의 외국 교재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필수 내용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나라의 영어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획일적인 내용 선정 및 구성의 부정적 결과인 셈이다. 열린 교육, 열린 교과서관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성은 생존의 바탕이라고 여길 만큼 중요하며, 따라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저작자별로, 출판사별로 나름의 외국어 교육관과 교수·학습 방법론에 기초한 교과서 개발의 길을 터 주는 자유 발행 도서 제도에서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교육 산업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교수·학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인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지적일 수도 있는 바다. 하지만 일견 외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가 실제로는 교수·학습의 바탕이 될 교과서의 질적 발전, 나아가 교수·학습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 발행 도서 제도를 따르고 있는 외국의 경우, 특정 출판사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편 과정을 통해 외국어 교육 관련 교과서가 출간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2종 도서 검정 시기에 맞춰 출판사별로 제작된 및 편집진을 급히 구성하여 단시일에 교과서를 제작하는 형편이다. 검정의 종료와 더불어 그 동안의 교과서 팀이 해체되는 현상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특정 출판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질 높은 외국어 교육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자유 발행 도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검정 기준 및 검정 시기의 구속을 받아 교과서를 제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분야의 교과서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그 동안의 출

판, 더 나아가 교육 산업 분야의 변모를 요구하는 바, 건전한 교육 산업의 육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 및 교수·학습의 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자유 발행 도서 제도의 부정적 요소와 그에 대한 대안

앞에서 살펴본 자유 발행 도서 제도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 발행 도서 제도는 민간의 창의를 발휘한 다양한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교육 수준과 내용의 관리가 쉽지 않고,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자유 발행 도서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교육 수준과 내용의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을 보자. 이는 기존의 검정 기준과 같이 일정한 틀에다 교과서를 끼워 맞추는 데 익숙한 관행에서 오는 불안이지, 실제로는 반드시 교육 수준 및 내용의 관리가 어렵다고 보기 힘들다. 뒤에서 다루고 있듯이 교사나 학부모 중심의 학교 단위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이들의 전문적 안목을 높이는 노력, 예를 들어 교과서 전시회나 세미나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 부적절한 교과서는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식의 질 관리가 가능하다.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 통제식 방식의 질 관리보다 오히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시장 경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좋은 교과서만 남게 하는 자유 발행 도서 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한 질 관리의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발행 비용의 소요가 많다는 지적



이 있다. 실제 제6차 교육 과정에서 2종 도서였던 초등 영어 교과서가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1종 도서로 바뀐 이유의 하나가 발행 비용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수많은 출판사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감내하면서 제작한 교과서가 출판 업계에 준 파장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물론 IMF라는 국가 경제의 시련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그 배경이 어떠했던 간에 발행 비용의 소요가 많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국민 경제가 안정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경제적 논리에만 근거하여 교육의 질을 좌지 우지할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는 교육의 질 못지않게 생존을 위한 경제적 노력이 필요한 때도 있었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섰으므로, 교육의 질 추구에 좀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시기이다. 경제적으로 인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였던 낙후된 교과서를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의 비용 소요는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과도기적으로 지나친 비용 낭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과서 공급 가격 등의 변인에 맞춰 적정한 수준 내에서 비용이 결정될 것이므로 비용에 관한 염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3. 자유 발행 도서 제도하의 교과서 선택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교과서의 질 제고는 최종적인 소비자인 교과서 선택자의 안목에 달려 있다. 자유 발행 도서 제도로 소비자가 원하는 교과서를 개발·공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된다면, 교과서 선택자가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선택하느냐가 교과서의 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 경제 체제의 운영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과서의 경우 일반 식생활 용품과 같은 소비재와는 달리 선택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할 교사나 학부모 등이 전문적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 개화기 이후 1종 및 2종 도서 체제가 근간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으로 인해 2종 도서 검정 심사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을 전문적 식견을 기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에서 거듭 강조한 바, 기존의 교과서 집필, 검정 등과 관련된 지침 및 기준이 획일화된 교과서를 낳는 데 일조를 한 셈이므로, 이러한 기준보다는 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기초한 바람직한 교과서상을 고려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Tomlinson(1998)이 영어 교육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재 개발의 주요 원리가 돋보인다. 이 원리는 자유 발행 도서 제도하에서 외국어 교육 교과서를 선정하게 될 교사, 학부모 등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여 다음에서 일부 제시하고자 한다.

- 교과서는 학습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교과서는 학습자의 호기심, 흥미,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독창성(독특한 주제, 그림, 활동 등), 다양성(여러 자료에서 얻은 다양한 글감 등), 효과적인 제시(적절한 색의 사용, 충분한 여백 등),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학습자의 관심을 끌 주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 교과서는 학습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불안 심리(anxiety)가 주는 부적인 효과는 널리 알려진 바, 학습자에게 친숙한 문화적

배경을 맥락으로 하여 적절히 여백을 두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교과서는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쉽고 단순한 과제를 제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Krashen(1985)의 입력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학습자의 언어 수준보다 약간 상위의 입력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약간의 도전적인 태도와 더불어 그것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신감을 가리킨다.
- 교과서는 학습자가 실제적이고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수 목적의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를 학습하는 경우, 영어 자체가 학습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깊은 상관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학습의 유용성이 높아 극대화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에게 학습 주제 및 과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실제적인 유용성을 맞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교과서는 학습자가 의사 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외국어를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보 격차 메우기 활동(information gap activity) 등과 같은 상호 교류가 가능한 활동 위주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교과서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장독립성·의존성, 종합적·분석적 사고, 청각적·시각적 등과 같이 개인별로 선호하는 학습 형태가 있음을 인정하고, 특정한 형태만을 고집한 교과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교과서는 피드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은 단순히 연습의 연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 초

기 단계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 지향적 과정이므로, 결과의 달성 여부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사후 학습에 대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의 원리들이 교사나 학부모가 자유 발행 도서 제도하의 여러 도서 목록 중에서 특정 교과서를 선택하는 데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교과서의 쪽수나 사용 어휘 수 등과 같은 외적인 체제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것이 외국어 교수·학습 이론에 기초한 내적인 내용과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이 원리들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이러한 전문적 시각에서 교과서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자유 발행 도서 제도가 지니는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그 동안 낙후되었던 우리 나라의 교과서 분야에 질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sup>24</sup>

#### 참고 문헌

- \* 교육부(1995). 편수 업무 편람, 편수 업무 담당자 연수 자료.
- \* 이용숙 외(1995).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 방식 국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 조난심 외(1999).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 개선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원.
- \* Education Development Center(1988). Improving textbook usability: Conference report.
- \* Krashen, S.(1985). The input hypothesis, London: Longman.
- \* Tomlinson, B.(1998). Introduction, In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Ed. B. Tomlinson. p. 1-24.

# 21세기 정보 사회의 ‘열린’ 교과서

—제7차 교육 과정 적용 컴퓨터 관련 교과서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김 송 미

교육부 교육연구사

## 1. 정보 사회와 새로운 교과서관

**새** 천년을 맞이한 오늘 세계는 인터넷이 생활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고, 하루에 약 2만 권 분량의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1963년 프라이스(D. Price)는 「바빌론 이래의 과학」이란 저서에서 그 당시 지식이 배가되는 기간을 15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주립 대학 연합회 회장인 애플베리(James Appleberry)는 앞으로 2020년에는 불과 73일이면 지식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 및 교과서 개발에 경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지식 정보 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교육 환경 개선과 개방화된 교수·학습 체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신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 10대 정보 강국의 의지를 밝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정보화 사업을 2년 앞당겨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2001년부터 초등 학교 컴퓨터 교육의 필수화 및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정보 통신 기술을 10% 이상 반영하기로 한 일련의 조치는 2000년과 함께 시작하는 제7차 교육 과정의 교육 방향 및 교과서관을 도입,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환경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의 이러한 정보 환경의 변화는 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 제작물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를 지식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텍스트 중심의 서적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학습 교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부가 이미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전자 저작물’이 보완 교재에 추가되어 각종 정보 매체와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 표현되는 디지털 자료까지도 교과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보 사회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뿐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이 필수적인 기본 소양이 되고 있으며, 최단 시간 안에 최적의 정보를 검색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에 적절

하게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는 등의 종합적 정보 활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유일한 지식의 제공자로서 인식되던 절대적인 교과서관과 달리 교과서를 학습자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로 인식하는 새로운 교과서관의 도입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교과서관을 기존의 폐쇄적인 교과서관과 비교하여 보통 ‘열린’ 교과서관이라 표현하는데, 여기서 열림이란 교과서 정책 및 내용 구성 전반에 걸친 변화를 말하며, 교과서 발행 제도, 지식관, 학습관, 매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정부 통제 방식의 폐쇄적인 발행 체제에서 자율적이고 다원화된 교과서 발행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발행 제도의 개방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 도서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2종 도서 및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사용 승인을 받는 인정 도서로 확대 전환하고, 발행 및 검·인정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 또는 일선 학교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며, 지역 사회의 요구 및 정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단편적인 지식 중심의 교과서에서 정보를 재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중시하는 활동 중심의 정보 제공형 교과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산업 사회에서 지식이란 불변의 객관화된 사실이므로 교수·학습은 교사가 이러한 지식을 학생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학생은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정보 사회에서는 엄청난 양의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생산되고 그러한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복제된 지식은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교과서는 이러한 정보 사회의 지식관을 반영하여, 이해하고 암기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고정 불변의 절대적인 지식보다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탐색하고, 체험하고, 토론하는 등의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터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을 위한 교과서에서 학생 중심의 열린 교수·학습 자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제까지의 교과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지도 자료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교사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과서는 학생이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의 수준 및 기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학습 형태를 제시하고 그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을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편찬’에 두고 새로운 교과서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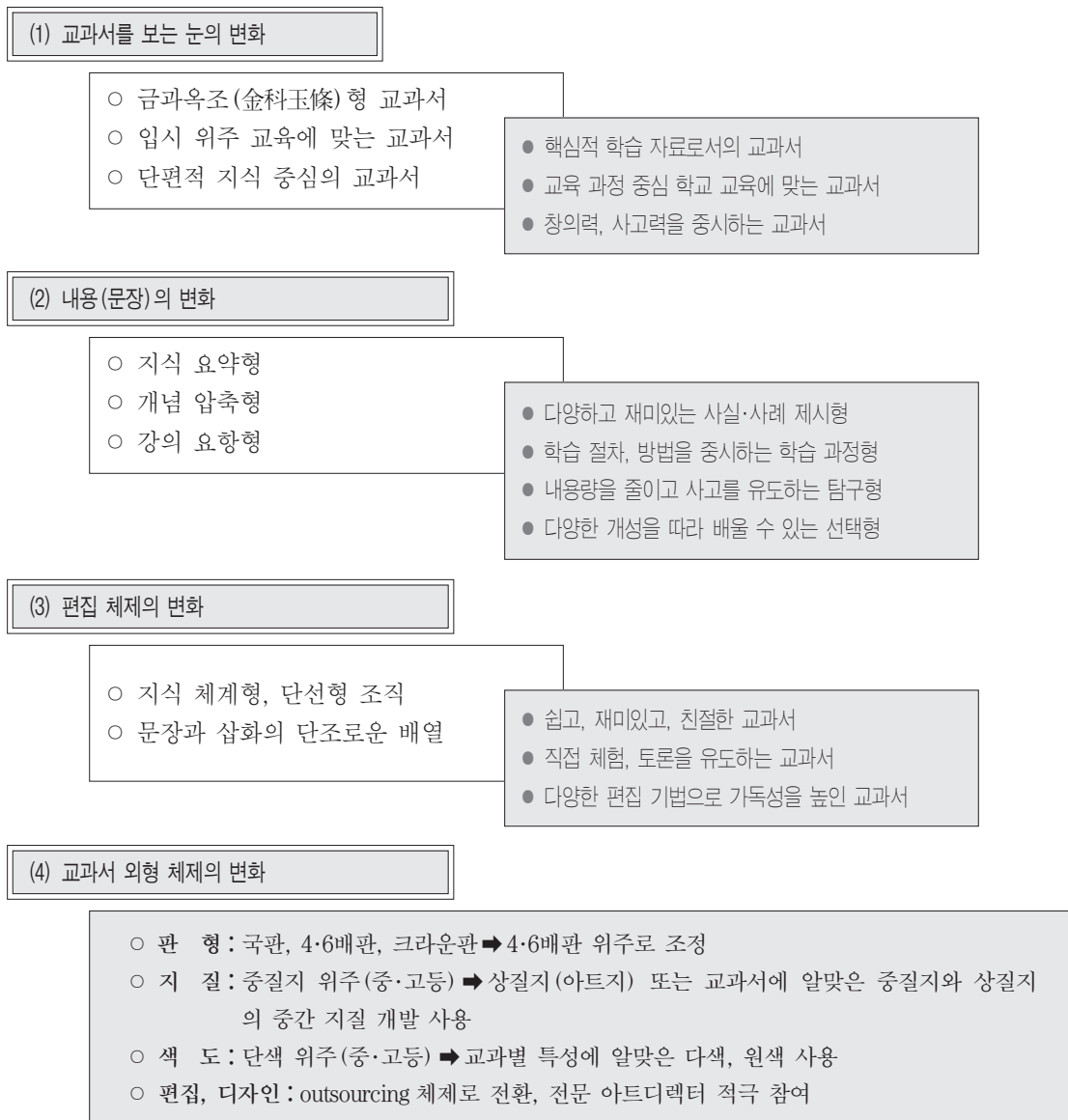
넷째, 교실 수업의 중심에서 시·공간적으로 개방된 교육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교실이라는 일정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학습자와 교사가 모여서 제한된 자료를 중심으로 마주 보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시·공간적으로 개방된 환경에서는 전세계의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이용하여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교과서는 이러한 시·공간적으로 열린 개념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인쇄 매체 중심의 서적에서 멀티미디어 매체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대부분 인쇄 매체 중심의 서적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오디오, 비디오 자료 등을 보조 자료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사회에서의 지식을 한정된 오프라인 매체에 수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지식의 주기가 짧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교과서에 온라인 자료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추어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매체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그림】 전통적인 교과서관과 새로운 교과서관의 비교



## 2. 컴퓨터 관련 교과서의 개선 방향

### (1) 컴퓨터 관련 교과서 목록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은 기초적인 정보 소양 능력을 기르기 위한 보통 필수 교육으로서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실과(기술·가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 교과로 중학교 ‘컴퓨터’ 및 인문계 고교의 ‘정보 사회와

컴퓨터’ 과목을 두고 있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6차와 달리 각 계열별 컴퓨터 기초 교과를 필수적으로 선·운영하고 있으며, 상업계와 공업계는 기타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컴퓨터 전문 교과를 두고 있다. 다음은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컴퓨터 관련 교과서의 목록을 나타낸 표이다.

【표】 제7차 교육 과정 적용 컴퓨터 관련 교과서 목록

학교급별		1종 도서	2종 도서	자유 발행 및 인정 도서
초등 학교		실 과		
중 학 교			기술·가정 컴퓨터	
고 등 학 교	일반계		기술·가정 정보 사회와 컴퓨터	
	농업계	농업 정보 관리		
	공업계	정보 기술 기초 디지털 논리 회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상업계	컴퓨터 그래픽 사무 자동화 일반	컴퓨터 일반	자료 처리 전자 계산 실무 프로그래밍 실무 사무 자동화 실무 문서 실무
	수산·해운계	수산·해운 정보 처리		
	과학계	컴퓨터 과학 I 컴퓨터 과학 II		
	국제계			정보 과학
	공업계 (2·1 체제) ※ 6차 교육 과정 기간본	전자 계산 일반 컴퓨터 설계 제도 컴퓨터 기술 컴퓨터 구조 기초 전자 회로 기초 프로그래밍 기초 컴퓨터 구조 응용 전자 회로 응용 프로그래밍 응용		



## (2) 자유 발행 제도의 도입

정보 사회로의 변화는 교과서 발행 체제 개방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내용을 다루는 컴퓨터 관련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지식 주기는 매우 짧아 1~2년에 걸친 편찬 기간 동안에도 정보 기술 환경이 변하여 교과서가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낙후된 지식이 될 수도 있으며, 수시로 정보·통신 기술 변화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현행 교과서 체제로는 교과서가 사회의 정보·통신 기술 변화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교육 정보화 시설 및 학습자의 수준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같은 학습 내용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유 발행 도서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컴퓨터 관련 10개 교과를 포함한 74과목 77책에 대하여 자유 발행 가능한 도서로 이미 구분 고시하였다.

자유 발행 도서에 대한 개념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현재 관련 법규를 개정 중인데, 그 의미는 실제적으로 교과서 사용 승인에 대한 권한을 학교급으로 이양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안에 따르면 자유 발행 도서는 인정 도서의 특별한 경우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 발행 도서란 국가가 편찬(1종), 검정(2종), 인정한 도서 이외의 교육 과정에 적합한 도서를 학교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교육 과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운영 방법은 학교장은 당해 학교에서 해당 교과 자격을 가진 교원 3인 이상이 선정하고 학

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중의 도서 또는 교사가 개발한 도서를 자유 발행 도서로 선정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인정 신청(사용 3개월 전에)하면 교육감은 교육청 인정 도서 심의회의 심사 절차 없이 당연히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초등 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인정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물론 이 제도는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과(컴퓨터 관련 교과), 개별화 교육을 위한 예·체능 및 국제 전문 교과에 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자유 발행 도서의 교과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교과의 경우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협의회 및 정책 토론회를 거쳐 대상 교과목을 선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관련 교과는 자유 발행 제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과목임에는 공감하나, 일선 학교에서 해당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와 해당 교과서의 시장성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었다.

즉, 첫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부적절한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으며, 시장성의 결여로 교과서가 없는 경우 교사가 스스로 교재를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현장 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출판사의 교과서 개발 기피로 인하여 교과서 부재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교과서 없는 수업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과열될 우려가 있는 교과목도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 제도는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정보 사회의 발전과 함께 교과서 자유 발행제는  
컴퓨터 관련 전 교과서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사 수급 대책을 수립, 일선 학교에서 비전공자 등의 비율을 줄이고,  
질 높은 재교육을 통하여 교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따른 질 높은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교과서 가격의 상승에 따른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교과에서는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된 실업계 전문 교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새로운 발행 제도(자유 발행제)를 적용하되 과목의 변화 강도가 높은 실기·실습 교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전문성의 기준은 현행 교과 담당 교사의 컴퓨터 자격 교사의 비율(전공자 비율이 80% 이상)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 과정의 신설 교과인 농업계의 「농업 정보 관리」와 수산·해운계의 「수산·해운 정보 처리」는 교과 내용의 특성상 도서 집필자는 농업 및 수산·해운업에 대한 지식과 컴퓨터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이상적이나, 이러한 인력 자원이 서울, 경기 등 중앙에 집중되어 있거나 희소하여 각 지역에서 도서를 편찬하고자 할 때 우수 인력을 확보하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교과서 개발 비용에 비하여 수익성이 없어 자유 발행제로 할 경우 교재의 부재가 우려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과학 계열의 「컴퓨터 과학 I」과, 「컴퓨터 과학 II」도 수요가 적어 교과서 부재가 우려되어 1종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중학교 「컴퓨터」 및 일반계 고등 학교 「정보 사회와 컴퓨터」는 교과 담당 교사 중 전공자 비율이 낮고 교과서 시장의 과열 경쟁이 우려되어 자유 발행 제도

의 적용에서는 제외되어 2종 도서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한 개방은 정보 사회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 관련 전 교과서를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며, 점차 일반 교과에 대하여도 적용되리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의 자유 발행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교사 수급 대책을 수립하여 일선 학교에서 비전공자 또는 부전공자의 비율을 줄이고, 질 높은 재교육을 통하여 교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 인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출판사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수익성이 적은 교과라도 교육적 책임감으로 교과서를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전문화된 출판사의 출현이 요구된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금처럼 전 교과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난립할 경우 과열 경쟁으로 인한 출판사의 도산은 물론 교육의 부실도 심각하게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방은 시대적 요구에 의한 바람직한 방향임은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를 확대·시행하기 전에 적용상의 문제점, 선정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후속 과제로 시행되어야 하며, 철저한 분석과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 (3) 내용 구성 체제의 개선

제7차 교육 과정 적용 컴퓨터 관련 교과서 중 전문 교과는 대부분 자유 발행 도서 및 인 정 도서로 전환되어 실제로 1·2종 도서로 개발되는 도서는 보통 교과와 기초 전문 교과이다. 여기서는 현재 개발 중인 중학교 「컴퓨터」와 고등 학교 「정보 사회와 컴퓨터」의 집필 지침과 검정 기준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내용 구성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며, 전문 교과는 각 계열별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새 교과서는 제7차 교육 과정의 새로운 교과서관에 따라 수행 과제 중심의 계층적 모듈 형태로 구성하여 체험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의 통합적 정보 활용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사가 교과의 배당 시간 및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전 교과서 내용 체계에 비하여 크게 달라진 새 교과서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 정보 활용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수행 과제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둘째, 배당 시간 및 학생의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화 학습, 점진적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듈식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하였다.

셋째, 팀별로 해결하는 그룹 과제를 제시하여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토론하는 능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재미있게 조직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 환경 발전과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쉽도록 조직하였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은 그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 교과서가 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또한 각 학교마다 정

보 환경이 달라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새 교과서는 본책과 별책 부록으로 조직하도록 하였는데, 본책의 내용은 수행 목표와 과제 중심으로 기술하고, 특정 소프트웨어나 정보 기술에 예측되지 않도록 하여 정보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별책 부록은 수행 목표와 과제 해결에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 및 기초 예제 풀이 등의 내용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기 쉽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노력을 검정 기준에 포함시켜 정보·기술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과서에서 사용된 예제에 따른 소스 파일을 제공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내용 선정시 정보 환경에 낙후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연습 과제를 제시할 경우에는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 학습자의 창의성을 배양시키고 수행 과제 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1

# 예술 분야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

김 춘 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1. 序

지 난 1970년대 후반의 유신 체제 때 ‘교과서 파동’이 있었다.

교과서는 교육 과정이 구체화된 하나의 집약적·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소망을 대변하고 그 사회의 병폐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그 당시에 국가의 역량을 기울여서 교과서의 가치와 기능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발전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연구·검토해서 장기적인 개선책을 세웠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그저 간단하게 편수관을 없애 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만 것이었다. 어쩌면, 그 당시 문제가 제대로 연구·해결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적어도 교과서나 교육 과정면에서 최소한 20년은 앞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노도 같은 변화의 새 밀레니엄 시대의 문턱에서, 더구나 IMF의 수치스럽고 쓰라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새 천년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학교와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유감스러운

시점에 서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미술」을 포함하는 일반 초·중등 학교의 교과 교육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교과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 동안의 소신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 2. 교과서 개혁의 중요성

한 시대와 사회는 나름대로 지식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교육 과정 문서로 집약·표현된다. 그리고 그것을 교과서로 구체화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교과서는 이를테면 그 시대와 사회의 교육의 정수요, 요체인 셈이다. 그런데 바로 이 교육의 정수가 병들고 썩었다면 그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을 것이다.

존 듀이가 위대한 것은 이미 1세기쯤 전에 서양인의 지식과 학교가 옛날의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급격한 산업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함을 주장한 개혁적 식견 때문이다. 산업 사회도가 버리고 이제는 전자 정보 시대가 다가와서 과거의 단순한 지식은 물론이요 산업 사회적 변화 대응력만으로도 어렵게 되었다. 새 천년

**이제 예술 교육도 본질을 회복하여 직관력을 길러  
새 시대를 여는 초월적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이 되어야 하고,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의 지식 산업, 전자 문명 시대에 적절한 전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학교 교육의 치명적 병폐가 바로 이점에 있다.

아직도 19세기 이전의 암기 위주의 단편적 지식 전달에 교육의 중점이 불박혀 있고, 제도와 행태가 거기에 더불어 고착돼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100년을 뛰어넘는 대 교육 개혁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교육 과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래서 교과서부터 바로 고쳐 써야 한다.

교과서가 개혁되어야 하는 당위는 굳이 장광설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든다면 그것은 새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주도하는 창의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듀이 이래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는 그간 문제 해결 중심의 논리적 사고력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이제 이점이 극복되어야 한다. 왼쪽 두뇌의 논리적·합리적 사고력만이 아니고, 이제는 오른쪽 두뇌의 직관적·창의적 사고력도 균형되게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점에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초점이 주어져야 하고, 제도와 관행이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개방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제 세계를 향해서, 변화를 향해서, 균형되고 온전한 내면을 향해서 교육 내용은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유연성이다. 서로 다른 본질과 특성들이 제각각 살아나고 그것들이 서로 융통성 있게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창

조를 이룰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도 통합적인 유연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경직되고 칸지워져 버린 모든 지식·기술은 이제는 살아서 숨쉬는 유연한 것으로 체질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독창성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나와 네가 서로 같은 성질 곧 동조성(conformity)에 중심을 두었었다. 이제부터는 그것과 똑같이 나와 네가 서로 다른 창조성(creativity)에도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 아니 어찌먼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간 그것이 지나치게 무시·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창조성 가운데서도 그 대표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독창성(originality)을 중시해야 한다. 장미꽃 한송이도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면 팔아먹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열리고 유연하며 독창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열린’ 교육 과정과 교과서라야 새 시대에 적응하고, 또 주도할 수 있는 생존·번영의 길을 여는 일이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과거에는 한 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이동에 교육의 동기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한 사회 자체의 생존 여부가 교육의 동기화가 되는 시대이고, 그것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가늠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이다.

### 3. 교육의 문제와 교과서

우리의 교육학 내지 교육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곧 하위 개념, 하위 영역에 그대로 그 문제가 구체화되고 확산되어 왔다는 의미가 된다.

예컨대, 예술 교육을 보자. 교육이 그간 존재(to be) 지향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살이가 무시·배척되고, 소유(to have) 지향의 가치관에 봉사하고, 그래서 출세하고 돈 벌고 권력을 쥐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 중요한 과목은 그러한 안목으로 평가·결정되어 왔던 것이다. 예술 교육도 그런 대세에 물들고 기여하면서, 대상의 독특한 본질을 발견하는 직관(intuition)과 저마다의 창의(creativity)를 개발한다는 교과 본질을 망각해 버렸다. 돈 잘 버는 장식적 화가, 수출과 대기업에 봉사하는 디자이너의 양성이 미술 교육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 예술 교육도 본질을 회복하여 직관력을 길러 새 시대를 여는 초월적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이 되어야 하고,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이집트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천년의 역사는 그것을 말해 주기에 충분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1세기의 다윈주의가 20세기 초의 피카소에서 비롯된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 아닌가?

요컨대, 예술 교육은 더 이상 과거의 ‘과학적 교육학’에 예속되지 말고, 그것을 훨씬 초월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 과정과 교과서 역시 오늘의 웅색하고 왜곡된 관행과 오류로부터 벗어나는 패러다임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 개혁적으로 교과서 개편이 시도해야 한다. 개혁적으로 교과서 개편이 시도됨으로써, 비로소 그간의 교육관, 예술관, 인생·사회관의 잘못된 근본적으로 검토·시정되는 계기를 가

져올 수도 있다. 교육의 문제는 교과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차제에 함께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 4. 교과서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교과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초·중등의 일반 교과의 교과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되, 특히 미술 등 예술 교과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교육 과정의 기본 성격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 과정을 중앙(교육부)과 지방(시·도 교육청)으로 이원화하되, 중앙에서는 간략한 지침을, 시·도에서는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좀더 구체적이고 특색 있는 형태로 존재하도록 한다. 지나친 중앙 집중화의 폐단을 막고 지역과 학교 중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원화 교육 과정 정책의 기본 밑에서, 중앙과 지방의 각각의 특성화와 책무성을 규정·이행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학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차별화(differentiation)’를 중요시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상세하고 강력한 교육 과정 통제는 결과적으로 지식·기술을 획일화하고 변화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 중심 교육 과정(school based curriculum)’이 기본 성격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확고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공통 지식의 최소화이다. 즉 공통·필수로 가르쳐야 할 교과목의 수를 최소화하고, 또 한 교과 안에서도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을 최소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통 교과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그만



큼 학생 나름의 진로나 관심 주제를 계속적으로 탐구하게 함으로써, 다양하며 특색 있고 살아 있는 신지식을 추구하도록 학교 교육의 기본 성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개의 초·중등 학교에서는 오전에 공통 과목을 학습하고, 오후에는 학생과 학교 나름의 특성화·차별화된 진로 교육 또는 개성 교육을 시행하는 풍속도가 전개 될 것이다.

셋째는 교과서 발행 기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중앙(교육부)에서는 예컨대 국어·국사 등의 과목을 책임 발행하고, 지방에서는 나름대로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2, 3개의 과목을 발행하며, 출판사나 학회, 그리고 개인 전문가나 저자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린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하는 ‘자유로운 발행’의 제도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국가 수준의 장점과 개인 수준의 장점을 각각 살려서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를 독점 관리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 발행’의 기본 정신을 기초로 해야 한다.

넷째는 교과서의 기능과 효과를 고려할 때, 그 심의·평가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국가 발행과 지역 및 개인 발행의 교과서를 심도 있게 또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평가·심의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 심의 기구, 교육 전문 기관 및 전문가 심의 기구, 교사 및 학부모 대표 심의 기구 등이 있어서, 여러 시각에서 다각도로 치밀하게 검토·논의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 정부는 교과서를 ‘통제하고 검인정’하기보다 ‘검토해서 권장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자유 발행’의 풍토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교과서 종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교과별, 교과 내용별로 다양화되고 심화된 교과서가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중학교 미술의 경우, 「중학교 미술」이라는 이름의 통권 형태(현재처럼)가 여러 권 다양하게 있어야 하고, 또 미술 내용 영역(회화, 조소, 감상 등)별로 각각 독립된 심화 교과서로 발행되며, 또는 주제별(인물 표현, 일하는 사람들, 종교와 표현 등)로 다양한 심화 교과서들이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또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게끔, 여러 종류 여러 권의 교과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교사가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학생이 탐구하는 ‘교재’로 그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교과서’는 이제 책만이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 디스켓, 녹음 테이프, 모형 작품 등으로 그 형태로부터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교사를 위한 교육 과정 문서, 즉 ‘지도서’이다. 미술 교과의 경우, 한두 권의 획일적인 교과서는 다양한 가치, 다양한 질을 추구하는 예술의 창의성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위험하고 해로운 제도일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식의 단순한 학생 교과서는 폐지하고, 대신에 다양하고 두꺼운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품질이다. 이 점에서 출판사와 저자에게 충분한 매력을 느끼도록 국가·사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단지 교사의 부담으로 사서 쓰는 것만으로는 고품질의 창의적인 교사용 지도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사용자가 적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미술 교과서는 특히 그러하다.

## 5. 관련 과제

교과서가 자유롭게 다양하며 심도 있고 창의적인 것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육 과정’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학교 교육의 풍토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몇 가지 시급한 문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과서 개선 연구이다. 모든 교육 관련 개선은 연구하고 실험하고 검토해서 접근하는 주의 깊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과서 연구 기관을 확실히 하고(국가, 지방, 개인별로), 필요한 방법, 조직, 절차를 정해서 필요한 지원(행·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과거에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국가 본위로 생각했고,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센터가 돼서 연구·개발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그 기능이 애매해졌다. 개인 수준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 교육청에서는 이 점부터 분명해 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역 나름의 교과서 개발 원칙이 연구·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명해진 다음에는 필요한 기능을 차별적으로 규정해서 불필요한 혼란과 중복을 감소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는 교사 교육이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장기간의 충분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사 집단이 연구·심의·집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필요한 장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 교사는 더 이상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소비자나 주변 인물이 아니라, 생산자이고 주체인 것을 각성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는 행정·재정 지원 체계의 확립이다.

교과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관계 인사가 새로워져야 하고, 새로운 발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새롭고, 유익하며, 충실한 교과서가 연구·출판·제작될 수 있도록 가능한 ‘권장과 지원’의 힘 있는 행정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

## 6. 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19세기의 교육을 계속할 수는 없다. 무언가 커다란 결단을 필요로 한다. 그 중의 하나가 교과서의 존재 방식이나 형태의 전면적 개편이다. 다양성·고품질·창의성이 뒷받침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는 새로운 교육 과정 및 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되고 활용될 때, 비로소 한민족 번영의 미래는 우리에게 여명의 기운을 짐짓 손짓해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교과서에 장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일정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일정한 내용을 공통으로 모두 배우게 하는 이점이 있었다. 문제는 좀더 새롭고 깊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중앙 집중화와 지방 분권화, 공통 학습과 개별 탐구, 서로 조화시켜서 보다 강하고 보다 새로운 변화 대응력을 키워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sup>22)</sup>



# 좋은 수업 전개를 위한 교과서 내용 분석 재구성 활용 사례

이 석 주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 I. 좋은 수업을 시작하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는 교사로서 가장 중핵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것이며, 특히 교과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수준 높은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 및 실행, 결과 정리 등에 관계되는 교과 교육 과정 관리가 그 핵심을 이룬다고 본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교과 교육 관련 활동을 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교과 교육 활동 시간은 그 양적인 면에서도 학생들의 인간됨과 지적 사고력을 자극하고 신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교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소원 중에 가장 최우선의 것을 들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교육 활동의 전문성과 완성도가 높은 수업 관리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완성도가 높은 교육 활동은 곧 효율적인 교육 활동과 함께 그 중심에 있는 수업에 대한 책무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의지를 반영하여 수업에서의 완성도가 높은 수업, 즉 책무성을 다한 수업으로서 ‘좋은 수업’에 대한 관심과 실천 연구가 점차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 II. 좋은 수업이란

우선 좋은 수업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의 열린 교육과 관련하여 열린 수업의 개념을 제시하며 그것을 기존의 수업과 구별하여 ‘닫힌 수업’의 반대 개념으로서, 수업 유형 혹은 수업 중에 예견되고 발견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수업 상황의 반대 개념으로서 수업을 이른바 ‘열린 수업’으로 개념지으며 열린 수업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열린 수업의 특징 또는 열린 수업의 유형이나 패턴을 정형화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유형이나 정형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런 정형화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최근에는 열린 교육과 관련지어 열린 수업이 학교 현장의 수업 방향과 흐름을 주도하면서 열린 수업에 대한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의 방향 설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열린 수업은 굳이 과거의 수업을 ‘닫힌 수업’으로 규정짓는 대립 개념으로서 대안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학교 현장 수업의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발전적 수업’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진정한 성취’를 하도록 하는 교육의 절차와 기법이 갖추어진 적극적 수업으로서 진정한 수업(authentic instruction)을 말하고 진정한 수업이 만족할 조건으로(뉴만과 웰레지의 견해: 이인호 박사, 1997) (1) 고차원적인 사고 - 지식의 기계적 암송과 적용보다는 사실이나 아이디어 조작, 종합, 일반화, 설명, 가설, 결론이나 해석에 도달하는 것, (2) 지식의 깊이 - 주요한 개념과 의미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학문의 핵심적 아이디어에 관계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분명하게 구별하고, 주장을 발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을 만들어 가고 비교적 복잡한 이야기를 전개시킬 때 지식은 깊어진다. (3) 학교 밖 세상과의 관련 - 단순한 교실 수업 상황을 넘어서는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이 실제 세계의 공적인 문제를 논할 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해 보는 장이 생긴다. (4) 실질적인 대화 - 교과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수준으로 실질적인 대화는 주제의 아이디어에 대해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이 있는 것이고, 수업 참여자들 간에 즉각적인 의견 교환이 활발한 수업이고, 집단적인 대화를 통해 한 가지의 주제나 문제에 대해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수업, (5)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학습 분위기 조성 -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를 하며 학생들을 존중해 주고 학생의 노력과 참여를 독려하고 모든 학생들을 학습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뜻한다. 이 외에 Porty와 Brophy의 좋은 수업(Good Teaching)에 대한 견해(1988)로 (1) 아동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misconceptions)을 채택하거나 예상하게 하고, (2) 아동들에게 초인지(metacognitive) 전략(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학습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가르치기, (3) 다양한 수준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4) 다른 교과 영역과의 통합적인 수업을 하고, (5) 평가를 통하여 자신들의 수업 반성 자료로 삼으며, (6) 능동적인 교사 등이다. 필자는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구성주의에 입각한 열린 수업으로서 좋은 수업(이석주, 1996, 1999)으로 정리하고 우선 수업의 과정에서 (1) 학생들의 고도의 지적 탐구 과정이 살아 있는 수업, (2) 학교 밖 세상과 교실 내 수업의 의미 있는 연결 과정이 있는 수업, (3)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만남이 충만한 분위기가 배경이 된 수업, (4) 양방향 의사 소통 과정에 의한 대화와 상호 작용이 왕성한 수업, (5) 주어진 교육 과정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한 수업, (6) 정보가 지식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의 학생 사고 과정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수업(구성주의적 견해) 등을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 요약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 Ⅲ. 좋은 수업 수행을 위한 방안 탐색

#### 1. 수업의 준비 단계

가.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철저한 분석과 해석으로 정보와 지식 체계와 가치의 조화

교사가 하는 수업이 다른 수업과 차별화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첫 작업은 교육 과정에 대한 바른 분석과 함께 교과서 내용의 철저한 분석 작업이다. 우선 각 학년의 교육 과정상에 포함된 지도 내용과 범위 및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해 두어야 한다. 이는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지도 방향을 설정하거나 반응 유형에 따라 즉시적인 지도의 개별화를

구성해 내야 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내는 일도 중요하다. 현재의 교과서는 가르쳐야 할 내용의 학문적 체계 내지는 계열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사는 교과서의 제목(주제), 도입의 글이나 그림, 삽화, 각 페이지에 담긴 지도 내용 등을 세밀화하여 그 내용을 다시 학생들의 사고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한다. (표 1 참고)

【표 1】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에 의한 전개 재구성

블럭	주제	주요 학습 요소	관련 학습 기능	정의적 지도 요소	평가 대상 내용
1	들이의 단위	들이 개념 이해	개념 이해	이해, 수용	들이와 부피의 구분
		보편 단위의 도입 1ℓ, 1dℓ의 도입	민감성 관계 파악	관계 이해 확산적 사고	주변과의 관계 1보다 큰 세계
		두 양의 측정	도구 사용	편의성	정밀성
		두 양의 비교	단위 환산	가치의 교환	개체의 인정과 단위 이해
2	들이의 연산	들이의 덧셈과 뺄셈	들이 단위 연산	능률과 책임	연산 능력과 민주 정신
		문장제 문제 해결	문제파악	상황의 이해	상황 수용과 대안 제시
3	무게의 단위	임의 단위를 사용하기	임의 단위 도입	임기응변	객관적 사고
		무게 단위 환산하기	비교, 환산	변화 수용	단위의 환산과 가치 불변
4	무게재기	도구를 사용한 측정	도구 조작	직관과 어림수	도구 조작과 눈금 읽기
5	무게 연산	무게의 덧셈과 뺄셈	논리, 환산	능률과 합리성	능률과 집중력
6	들이와 무게	양감기르기	추정, 어림	관찰력	적응과 관계 개선
7	연습	들이와 무게의 정리	정리, 요약	주변 정리, 기획	통시적 사고력, 추진력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쳐야 할 것들의 위계적 나열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사고 과정에 논리적인 비약이나 학생의 사고 과정에 지나치게 곤란을 겪게 하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분수의 덧셈을 지도하면서 대분수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시키기 전에 대분수의 덧셈을 지도하거나,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을 바로 가르치거나 하는 것은 개인차를 무시한 과정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대분수의 덧셈을 가르치기 위해, 분수의 개념에서부터 진분수의 개념, 덧셈,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자연수의 분수화, 분수의 자연수화, 대분수의 개념, 대분수의 덧셈(받아올림이 없는), 대분수의 덧셈(받아올림이 있는) 등의 과정을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더욱 세분화하여 제시를 하고, 각 단계에서 적응하는 학생과 뛰어 넘는 학생을 나누어 지도하도록 한다. 수준별 지도 혹은 지도의 개별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석 작업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여기서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교과적 지식 체계를 학생의 사고 과정에 중심을 두고 단순히 재구성하는 것에서 한 단계 높여서 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획득하게 될 학습 기능, 사고 기능, 정의적 요소들도 함께 분석하여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위의 표 1 참고)

위의 표는 이런 이유로 해서 차시가 아닌 학습 지도 요소 중심의 smallstep이므로 차시가 아닌 블록으로 구별을 하였고, 각 블록은 배당 시간이 학급에 따라 40분의 벽을 넘어 다양하게 구성한다. 이것이 진정한 열린 시간의 의미가 된다.

#### 나.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사태 제시와 다양한 교수 기법의 개발

위의 【표 1】과 같이 교육 과정 혹은 교과서 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거기서 나온 사고 기능, 학습 기능, 정의적 요소 등을 추출하여 그 단원(혹은 그 해당 차시)에 대한 적응 수준을 변별해야 한다. 이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수업 과정 내에서의 수준별 지도, 즉 지도의 개별화를 위한 준거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원(단계)에서 어떤 학습 기능과 어떤 사고 능력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학생들로 하여금 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본 기능과 관련된 놀이나 도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 동기를 높이고 출발점 행동을 강화하게 된다.

아래의 【표 2】는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의한 학생 실태 파악 기준표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학생의 학습 기능, 태도, 가치 형성을 위한 실태 조사표

영역	내용	방법	분석 실태			시기	비고
			상	중	하		
학습 기능	관련 자료 수집	파일 분석				수업 전	평일 수업중
	소집단 참여	수행 과정 관찰					
	학습 문제 파악	대화					
	주장하는 글 쓰기	작품 분석					
학습 능력	능동적 발표력	토론 내용 분석					
	창의적 표현력	발표 내용 관찰					
	정보 분석 처리	학습 결과 분석					
	구조적 사고력	토론 내용 분석					
학습 태도	토론 참여 태도	토론 활동 관찰					
	주변 정리 태도	학습 과정 관찰					
	과정 참여 태도						
	의견 제시 수용						

#### 다. 해당 학년들의 발달적 특성 이해와 학습에 대한 특성, 경향의 학년 초 파악

교사는 학년 초 혹은 단원의 시작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해당 학년의 공통된 개념이나 기능을 진단할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투입을 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학생이 본 학습 기능 등과 관련하여 어떤 발달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등에 대한 선행 분석 작업을 해야 한다(표3 참고). 특히, 좋은 수업이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의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이 어떤 심리 구조를 지니고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한 기존 경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유형의 학습 활동을 선호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 심리적 발달 이론 연구와 함께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이나 문장 혹은 지식 구조가 학생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표 3】 학년 초(단원 초) 학생 실태 체크 리스트(예시)

번호	성명	정보 수집	정보 분석	도덕, 사회적 지식	참여 태도	토론 예절	가치 수용	학습 정리	창의성				
									정교성	민감성	독창성	유창성	개방성
1													

라. 단위와 차시 내용의 철저한 분석과 재구성(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수행 능력 구분)

오늘날 수업을 하는 교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당해 단위 혹은 당일 수업이 다음 단위이나 다음 차시에 어떻게 연결이 되며, 어떤 기능을 지닌 단위 시간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없이 맹목적인 단위 시간 이수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4-1, 2 참고). 좋은 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자신이 오늘 전개한 수업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 수업과 후 수업을 연관 지어 안내를 해 주고 특히, 오늘의 수업이 학생 자신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또 안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학생은 다만 수업의 참관자이지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은 될 수 없게 된다.

【표 4-1】 단위 시간을 위한 내용 분석

단위	6. 들이와 무게		차시	7/8	중심 학습 기능
수업 목표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고 무게와 들이에 대한 양감을 길러 준다.				1. 주변의 사물에 대한 들이와 무게의 감각 2. 주변 사물에 대한 민감성과 관찰력 3. 경험과 예측과의 조화 4. 기구 조작 활동
학습 목표	여러 가지 들이와 무게에 대하여 어렵잡아 비교를 할 수 있다.				
학습 문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이와 무게를 알아보다.				
주요 학습 활동	들이와 무게 짐작하기	정해진 양 만큼 들이와 무게 찾기	들이와 무게 비교하기		
	눈만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 들이를 예상하고 친구들과 비교하기	1kg, 1ℓ, 1g, 100dl를 정하고 정확히 찾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 이해하기)	주변의 사물을 보고 들이와 무게를 짐작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히 측정하기		

【표 4-2】 단위 시간을 위한 내용 분석

수업 목표	*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자신과 관계를 짓는 생활 태도를 길러 준다. * 주제에 접근시키기 위한 기초 학습 단계로서 ‘공익’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습 활동에 적극성을 갖게 한다.
학습 목표	일상 생활 반응을 통하여 여러 사람을 위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말할 수 있다.
주요 학습 활동	1. 친구들에게 설문하기를 하고 그 결과 발표하기 * 친구를 위하여 내가 양보한 경우 * 여러 사람을 위하여 내 이익을 포기한 경우 조사 * 여러 사람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봉사한 경우 * 여러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봉사한 경우 2.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정리하기-봉사, 양보와 공익 3. 공익에 대한 새로운 생각 해 보기
학습 문제	우리 주변에서 여러 사람을 위해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 단위 시간 수업 절차와 활용할 발문의 준비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수업의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교사가 좋은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학생 중심에서 정밀 분석하여 교과적 지식이 지닌 실존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적용될 학습 기능, 학습 요소, 정의적 요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학생의 사고 수준에 준하여 블록을 재설정 한 후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블록 전개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이제 수업 직전의 단계로 수업 과정과 각 과정에서 활용될 핵심 발문 및 자료 개발, 투입의 과정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수업 지도안(마인드 맵과 같이 교사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수업의 목표를 가운데 두고 그 시간에 하고 싶은 말과 활동 투입할 자료, 내용 등을 지도로 그린 후 이를 정리함.)을 작성하고 이에 의해 교사용 약식 수업안을 작성한다(표5 참고). 이 때는 정교한 수업안이나 정서된 수업안이 아닌 수업자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약식 수업안이면 된다.

【표 5】 수업을 위한 약식 수업안 작성의 예

단 계	과 정	지도 요소	활동 형태	교수·학습 활동	시 량	자 료
먼저 열기	사고 자극 하기	관계, 대응에 관계된 놀이하기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방 놀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낱말 카드 보고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잇기</li> <li>* 숫자 카드를 보고 대응 규칙을 찾아보기</li> <li>* 영상 게임을 해결하며 ‘대응’, ‘관계’에 대해 관심 갖기</li> </ul> </li> </ul>	5	낱말 카드, 숫자 카드, 영상 게임
시작 하기	학습 문제 살피기	학습 문제 파악 하기	전체 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문제 살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 65쪽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OHP로 제시하고 문제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li> <li>－문제와 관련이 된 생각하는 방법은?</li> </ul> </li> </ul> </li> <li>■ 학습 문제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가지의 자료를 보고, 관계를 살펴보고 알맞게 나타내어 보자.</li> </ul> </li> </ul>	5	수학 65쪽  게시 자료
들어가기	문제 확인 하기  계획 세우기	문제 해결 방법 찾기  계획 세우기	전체 분단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살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기(수학적 상황, 도덕적 상황)</li> <li>* 학습 활동 계획하기</li> <li>* 친구들의 입장을 듣고 자신과 비교하기</li> </ul> </li> </ul>	5	OHP 자료, 계획표
활동 하기	문제 해결 하기	자료를 이용한 대응, 규칙 개념 발견하기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응’과 ‘관계’를 이용한 규칙 발견하기, 활동하기</li> <li>■ 수학적 상황과 국어적 요소(비슷한 말, 반대 말) 도덕적 상황에 맞는 대응(적응) 방안 탐색하기</li> </ul>	25	학습지 3
정리 하기	학습 결과 분석 하기	형성된 개념의 정리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하기 학습의 결과 비교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적 상황에서의 적용</li> <li>* 국어적 요소에서의 적용</li> <li>* 도덕적 요소에서의 적용</li> </ul> </li> </ul>	10	OHP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HP 자료를 통하여 학습 내용 정리하기 (자료 보고 규칙 찾기-대응과 관계, 규칙)의 발견 과정</li> </ul> </li> </ul>		
확인 하기	학습 결과 확인 학습	형성 평가	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내용을 기록하기</li> <li>■ 확인 학습지를 이용한 학습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 학습지를 이용한 학습 정리</li> <li>* 학습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의 지도</li> <li>* 수준별 분단의 학습 내용 확인</li> </ul> </li> </ul>	5	확인 학습
다시 열기	발전 적용	학습 능력의 심화 작용	개별 ⇒ 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결과의 재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응(적용)하기 역할극</li> <li>*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표정짓기</li> <li>* 다양한 문제에서 관계 살피기</li> </ul> </li> </ul>	5	더할 공부

#### 바. 교실 공간 구성 및 학습 집단의 구성과 자료의 배치

오늘날 교실 공간의 구성은 상당히 교사 주도적이고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열린 교육과 관련지어 복도나 교실의 유휴 공간이 적당히 재구성되고 설치물이 배치되어 활용되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런 공간의 구성이 담임이 학생들의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사가 교육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교과 내용을 분석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서 구성이 된 것인지를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 남이 하니까, 연구 학교 발표장에서 보니 그럴 듯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모방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물론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방이 아닌 카피를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가 좋은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분석으로 끝내지 말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 혹은 학습의 공간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교실을 ‘그냥 모여서 움직이는 곳’이 아닌 ‘살아 숨쉬는 실존의 터’로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색다른 공간 구성 방법이 필요하다.

우선 공간을 구성할 때 교수 방법과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사가 교수 개념의 공간을 구성하고 학생들을 그 공간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경우는 본능적으로 주체적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학생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가에 관계된 것이다. 이는 곧 교사가 교과서 분석 및 과정 분석을 통하여 무엇을 가지고 어떤 활동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를 그리기 전에는 어렵다. 약식 수업안은 그래서 절대로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교실 공간 구성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교실 공간은 상설 공간과 임시 공간 특별 공간으로 볼 수 있고, 기능에 따라 소집단, 홀로, 전체 모임 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쳤을 때 학생들이 그 공간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질 집단이 유리한가, 이질 집단이 유리한가, 어떤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할 것인가, 개인



차를 조절하며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학습 활동을 하고 나서 형성될 가치와 태도, 그리고 획득될 성향이나 지식 등은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 학생들을 어디에 모이게 하는 것이 좋은가, 교사 위치가 앞이어야 하는가, 뒷자리이어야 하는가, 자료를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하며 얼마간을 두어야 하는가, 교사가 관리를 하여야 하는가, 학생이 관리를 해야 하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공간 구성인 작품 게시, 안내판, 작품 누적물, 일회성 자료 전시 공간, 부정기 활용 자료 등을 교실 공간의 곳곳에 두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는 말로 그런 변화를 주는 일이 ‘월간 행사’나 ‘학기간 행사’ 등으로 변질되어 한 번 게시하거나 설치하고 한 달이나 1년을 가기 보다는 매주 교육 과정 운영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구성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즉, 그 기간에 의미 있는 것들이 의미 있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그 효과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교육 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가변적인 공간, 살아 있는 생동적인 공간이 되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이런 환경 구성을 위해 가변적인 공간 구성, 학생들의 공간 구성 및 공간 기획에 대한 심리적인 특성 등에 대한 사전 지식과 연구 및 분석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작은 공간에서 잘 활동하는 사람, 여러 사람 앞에서 더 적극적인 사람, 공간 구성을 잘 하는 사람,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여 자극을 받는 사람, 교사가 가까이 있으면 더 좋아하는 사람, 작품이나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잘 이용하고 만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등으로 기준을 정하여 그 때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다. 주로 주간 단위로 구성하는 경우가 좋으나 여건이 어려울 때는 단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최근의 교실 공간은 그냥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학습 활동을 하거나 집단 활동을 하는 결과가 어떤 공간에 그대로 드러나거나 진행 상황이 게시가 되면 학생들은 훨씬 더 성취 동기를 자극받게 될 것이다. 주제를 탐구하거나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어떤 주제를 주고 자유로이 공간을 구성하게 해 보는 일들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쉬운 표현 방법은 마치 홈 페이지에 얼마간의 메모리를 할당받고 그 메모리를 마음껏 재구성하고 엮어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좋은 수업 실행 단계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가. 학생의 수준에 대응하는 복선 구조를 유지한다

우리는 학생들을 대할 때 같은 학년이니 같은 수준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다. 이제 한 해가 지나면 무조건 한 학년씩 진급하는 학년의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발달 수준을 생각하고 같은 학년에서도 그 수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수준을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업의 복선 구조란 학생의 발달 수준차를 고려하여 그 전개 과정을 둘 이상의 과정으로 마련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 나. 가능한 통합 수업을 시도하되 적응 단계를 확실히 거친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교과와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의 통합, 학습하는 방법의

통합을 의미한다. 통합 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단 분리형 교과를 생각하고 그를 바탕으로 통합을 하며 분리형, 통합형, 광역형 등을 생각하는데 그런 통합은 학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분석적 접근 방법에 의해 정리된 결과이고 학교 교실 수업에서는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을 하려 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한 분류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합 수업이란 내용과 방법의 통합, 목표와 평가의 일치성, 다양한 문제 접근 방법의 수용, 가치와 지식의 통합, 인간과 자연과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적용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교재관과 인생관 교육에 대한 신념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이런 학습 사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년 초부터 계획적인 지도와 안내가 있어야 한다.

#### 다. 교과 목표 - 단원 목표 - 차시 수업 목표 - 차시 학습 목표 - 차시 학습 문제 - 차시 학습 활동의 구조에 일관성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연구 수업을 하거나 수업 연구를 하는 경우를 보면 위의 체계들이 잘 드러나 보인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평소 수업을 하면서 이와 같은 체계에 대한 연구가 없고 그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수업을 잘 해 보고 싶은 교사일수록 평소 수업에서 위의 체계를 세우는 연습을 자주 해 보기를 권한다. 특히, 교사의 교수 활동 목표로서 수업 목표와 학생의 학습 결과 목표로서 학습 목표를 혼돈하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고 학습 목표를 수업 목표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장 교사의 관심과 연구가 절실하다.

#### 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인지한다

수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수업의 전 과정이 목표 쪽으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과정이 수업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수업을 하는 교사는 단순히 단위 시간의 학습 활동을 학습 목표 또는 수업 목표로 오해를 하고 그쪽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열린 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전개한다는 미명 하에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만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게 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이는 이런 사고가 평소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라고 해서 귀찮아 죽겠다.’라는 등의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교사의 수업 시간에 평가 목표의 상실로 수업의 흐름이 바뀌고 학생의 사고 활동 제어가 불가능하고, 특히 학습을 하고 교수를 하는 근본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중심의 교육일수록 열린 수업일수록 자유 개방적 분위기 하에서의 수업일수록 교사는 더욱 평가 목표를 확실히 알고 수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이에 창의적으로 대처해 가야 한다.

#### 마. 드라마틱한 수업이 되도록 교사의 역할을 조절한다

(관리적 기능, 민주적 기능, 치료적 기능, 자유주의적 기능)

우리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주로 세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 하나는 ‘이 수업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수업이다. 이는 수업의 과정이나 흐름이 참관자의 기존 지식과 합일되고 자주 본 경험 등과 견주어 그 교과의 특질에 맞게 맷힘이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전개된 수업을 두고 하

는 말이다. 이른바 교과와 특질에 맞는 교재 유형에 맞는 수업 모형에 의해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이론적 원론에 충실한 수업으로서 그런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의 하자가 없는 수업이다. 또는 교사가 교수 기술이 뛰어나서 아주 매끄럽게 전개되는 수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수업은 보기는 좋지만 좋은 수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수업은 참관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창조적 구성 과정이기 때문이다.

보이기 위한 것은 영화나 연극 그림 등이 그 예이다. 다듬고 바꾸고 연습하고 해서 나온 산물인 것이다. 수업은 연습이 없다. 바로 실시간 진행되는 생방송이고 실제 상황이기에 결코 매끄러운 수업만은 될 수 없다. 즉, 급변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며 때로는 전혀 반대의 가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수업은 이론이나 모형에 비추어 보면 전혀 맞지 않고 색다른 것이 된다. 그런 수업을 우리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주고 더 많은 부수 효과를 유발시킨다. 그런 수업을 우리는 마치 짜여진 극본에 의해 연출된 드라마라고 하고 하여 ‘드라마틱한 수업’이라 한다. 교사는 보기 좋은 수업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수업, 즉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검사하고 조작하는 관리적 기능을 중심으로 보기 좋은 수업을 전개하려고 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일과 문제를 바르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을 경영하는 방법을 익혀 가도록 하는 연습의 장이 되도록 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의 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유주의적 교사는 낭만적이고 수용적이며 여유가 있고 학생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지닌다.

#### 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발전시킨다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것을 하나 들라면 교수 방법이나 수업 과정의 획일화일 것이다. 어제 한 시간의 흐름이나 오늘의 수업 과정이 같고, 오늘 실시한 교과의 지도법이 오늘 시간과 다를 것이 없다면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사고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교단의 폭력이다. 교사는 매일의 수업에 실험 정신을 가지고 어제보다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제보다는 더 발전된 그 무엇을 학생에게 끊임없이 보여 주고 제시하고 안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같은 과목이니, 같은 단원이니, 교재에 제시된 것이니 비판 없이 따른다는 것은 오늘 지금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교사는 가르침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다양한 교수 기법과 적용 대안을 개발하며 스스로의 수업 수행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 3. 교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좋은 수업은 곧 교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 되어야 한다. 좋은 수업은 교사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사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교사는 좋은 수업을 바르고 제대로 된 수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핵심 사항만 정리한다.

가. 초등 학생들의 발달 단계별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는 연구

- 나. 수업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교수 이론의 정립
- 다. 구성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적용 방안의 탐색
- 라. 적극적 상담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 마. 각 교과별 교수 이론에 충실한 수업 과정의 완전한 이해
- 바. 수업에서 우회 에너지 축적 방안 탐색
- 사. 수업에서의 조직 및 집단의 역학 연구

#### Ⅳ. 교사의 희망봉 – 좋은 수업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치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수업의 완성일 것이다. 그 수업은 교사의 혼이 들어 있는 예술품이어야 하며 완성도가 높은 순수한 청화백자와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는 시행 착오를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이 있고,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교사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아이들은 우리의 21세기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교사는 좋은 교육 활동으로서 좋은 수업을 준비하고 수행하며 묵묵히 교사의 길을 가야 한다.

#### 좋은 수업을 위한 제언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화두로 삼아서 선생님께서 하루에 하나씩 정리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라. 그러나 교과서 내용대로 가르치지 말라.
2. 교육 내용을 조직하라. 그러나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
3. 주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보라. 학습 지도를 신선하고, 활력 있고 자연스럽게 해 줄 것이다.
4. 학습 지도는 자연스럽게 하되,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가르치지 말라.
5. 교사가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학생이 알거나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말라.
6. 학습할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
7. 자세한 설명이 전체를 가르치는 데 충분하리라는 생각을 버려라.
8. 아는 지식을 마구 쏟아 놓지 말라. 학생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배울 수 있는 것에 더 흥미를 느낀다.
9. 학생의 무지와 우둔함을 동일시하지 말라.
10. 어렵게 준비하지 말라. 학생 수준이 낮으면 따라갈 수 없다.
11. 적당히 넘기지 말라. 하나의 잘못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실수가 전혀 없는 것은 지루하다.
12. 새로운 용어나 개념은 반복하라. 사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시보다 실체가 중요하다.
13. 교수와 연기는 다르다. 교수는 주제 후에 대사가 따르고, 연기는 대사 후에 주제가 따른다.
14. 학생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하라. 학습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이다.
15. 배우기 원한다는 전제 하에 가르칠 일이지 시험 통과를 전제해서는 안 된다.
16. 학습의 책임을 묻지 말라. 모든 것은 내 탓이다.
17. 수월성을 대중성에 우선하라.
18. 잘한 일을 칭찬할 것이지 잘못된 일을 들추어 벌하지 말라.

- 
19. 학생을 비웃지 말라. 학생과 더불어 웃어라.
  20. 학생이 당신을 대하듯이 당신도 당신을 대하라.
  21. 교수를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말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생각하라.
  22. 학생들 앞에서 성내지 말라. 학생은 당신의 개인 감정에 관심이 없다.
  23. 학생을 존경하라. 그러면 학생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24. 친숙함과 예의 없음: 학문적 견해 불일치와 개인의 감정을 혼동하지 말라.
  25. 학생이 당신의 교수 내용만 택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26. 학생이 좋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학습 지도가 싫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숙제 때문에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른다.
  27. 학생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이해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혼란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28. 천천히 시작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라. 학생을 녹초로 만든다.
  29. 모든 학문은 각기 고유의 언어를 가진다. 훌륭한 학습은 그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지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30.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판서하고 학생이 받아쓰도록 해서 반복 학습이 되도록 하라.  
개괄적인 설명은 학습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31. 교수한 내용을 받아쓰게 하지 말라. 학습은 창의적, 능동적으로 수용되고 효율적으로 작용되지만 받아쓰기는 기계적인 연습에 불과하다.
  32. 너무 단순화시켜 사소한 것으로 만들거나 너무 복잡화해서 애매하게 만들지 말라.
  33. 학습 후에 기쁜 감정과 정력을 쏟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이런 느낌이 없으면 훌륭한 학습이 아니다.
  34. 학습의 결과는 양보다 질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
  35. 학생에게 무리한 학습 능력을 기대하지 말라. 정신적 포화의 한계는 지능보다 심리적인 것에 더 크게 좌우한다.
  36. 천부적으로 태어난 우둔함을 조롱하지 말라.
  37. 가르칠 때 유념할 일은 학습 의욕을 잃지 않게 하는 일이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학습 의욕을 촉진시키며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

# 정보화 시대 도래에 따른 교과서의 성격과 기능의 재조명

양 미 경

건국대학교 교수

## I. 정보의 양의 폭증과 급속한 변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식의 성장과 변화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다. 하루하루 엄청난 양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정보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보급되고 있다. 사회 각 부문에서의 지식이 전문가들조차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폭증하고 급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 담을 지식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은 보편적인 진리이며, 따라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 내면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기대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그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각 분야마다 최첨단의 지식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기대 자체의 허구를 인정하고 교과서에 담기는 지식의 본질 혹은 내용의 특성을 재규정하는 방법이다.

필자의 입장은 후자이다. 전자의 선택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다는 생각이다. 교과서의 내용이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실재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은 그릇된 인식론

에 토대를 둔 허구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최신의, 최첨단의 내용으로 교과서를 재구성한다고 하여도 교과서 내용의 진리성, 보편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구성된 의미의 표현이며, 후대에 의해 얼마든지 재해석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목하 논의의 대상인 교과서는 초·중·고등 학교에서의 활용을 위한 자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류가 이룩해 놓은 여러 부문의 자산을 소재로 하여 학습자 개인의 경험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잠재력을 구현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기르는 단계의 교육과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각 교과는 마스터해야 할 ‘내용’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사고와 경험의 재구성을 위해 동원되는 ‘소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특정 내용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은 그것이 보편 타당한지, ‘객관적인 진리’인지 혹은 가장 최근의 이론인지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기보다는, 그것이 학습자의 인지 수준이나 경험 세계 등을 얼마나 의미 있게 재구조화할 수 있는 소재인지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교과서의 제한되고 규격화된 지면을 통해  
제공되는 내용이 컴퓨터나 통신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방대한 정보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 및 학습 상황의 독특하고  
고유한 맥락에 맞게 ‘빛어진’ 것이어야 한다.**

요컨대,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지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방대하게 쏟아지는 정보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가장 최신의 내용을, 가장 완벽하게 교과서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특정 내용이 정보의 바닷속에 넘치는 엄청난 정보 중에서 유독 선정되어 얼마 되지 않는 교과서의 지면에 실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최신성이나 보편 타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보의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뭔가 다른 차원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담겨진 내용 그 자체의 특성에 더해 그것이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맥락에 힘입어 비로소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II. 컴퓨터 및 각종 통신 체계의 발달**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정보의 양의 폭증과 급속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동인(動因), 즉 ‘컴퓨터 및 각종 통신 체계의 발달’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하이퍼텍스트(hypertext)’ 혹은 ‘하이퍼미디어(hypermedia)’ 등의 새로운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의 정의와 특징에 대한 논의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

어져 왔다(Ambrose, 1991 ; Spiro et al., 1991a, 1991b ; Yang, 1996 ; Wei, 1991 ; Tolhurst, 1995 등).

전통적인 교과서의 체계는 독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나아가면서 읽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적이거나 심층적인 정보는 별도의 보충 자료를 통해서 얻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를 통해 학습하는 경우, 학습자는 자기가 처해 있는 학습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컴퓨터 체계를 통해 즉각적으로 보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하이퍼미디어는 글의 형식으로 된 부가적인 자료는 물론, 각종 영상이나 소리, 음성, 음악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자료의 접근 순서나 내용 등을 개인의 필요나 요구, 관심에 따라 얼마든지 바꾸어갈 수 있다는 점 등도 중요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나 하이퍼미디어의 융통성, 비직선적인 구조, 그리고 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접근 가능성 등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이고 융통적이며, 관계적인 사고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교과서가 지닐 수 없었던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나 통신 체계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쇄 형식의 교과서 혹은 학습 자료가 향후의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감소될 것이라는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지 방대한 양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컴퓨터나 통신 체계 등의 도구에 스스로 황홀해져서는 안 된다. 끝이 없는 정보의 고속 도로에 펼쳐진, 무한한 웹사이트들(websites)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사 소통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 정적이고 메마른 정보가 생동하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정보들을 식별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교과서의 제한되고 규격화된 지면을 통해 제공되는 내용이 컴퓨터나 통신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방대한 정보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 및 학습 상황의 독특하고 고유한 맥락에 맞게 ‘빛어진’ 것이어야 한다. 단지 수많은 정보의 ‘일부’가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메시지로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인쇄된 교과서가 가지는 직선적인 구성 방식, 지면의 제한성 등의 한계를 고려할 때, 교과서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성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도록 하는 구성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완결된 형식으로, 논리 정연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는 달리, 일부러 허점과 모순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식, 같은 문제라 하여도 다른 각도나 관점을 통해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 내면화해야 할 내용 그 자체를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을 단서로 하여 한참을 연마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전해 주려고 애를 썼던 것의 실체를 사후에 깨달을 수 있게 되

는 절차적인 내용 구성 방식, 학습자의 기존의 구조에 무언가를 차곡차곡 더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의 허점을 논박하여 해체시킬 수 있는 방식, 의문을 잠재우기보다는 생각할수록 궁금함과 호기심이 촉발되는 구성 방식, 지식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해 가는 잠정적인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교과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고성능의 컴퓨터에 의해 제공되는 어떤 최신의 정보보다 더 교육적인 가치가 풍부한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개인적인 학습 경험의 역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과서, 구체적인 학습 환경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교과서는 정보의 방대함이나 최신성, 정확성이 아닌, 정보의 ‘적합성’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 III.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의 발전 방향

앞서 살펴본 정보화 시대의 특징들은 종전의 교과서 구성 방식 및 기능에 대해 심각한 반성과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교과서 구성 방식에 대한 몇 가지의 전형들을 대비시켜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교과서 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것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sup>1)</sup>

#### 1. ‘객관적인’ 교과서에서 ‘저자의 목소리가 담긴’ 교과서로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교과 특성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내용들이 학문적 논쟁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수학이나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 과학의 경우는 물론, 역사나 정치, 경제,

1) 지면 관계상 요점만을 제시함.

자세한 논의는 “교과서 구성의 문제와 발전 과제”(『교육과정연구』, 제16권 제1호)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본인의 홈페이지 (<http://center.kku.ac.kr/~mkyang>)에 게재되어 있음).

윤리 등과 같은 교과 영역에서도, 제시된 내용의 진리성에 대해 모든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 즉, 논쟁의 역사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소개를 생략하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는 진짜 중요한 주제들은 배제한 채, 중립적, 객관적인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의 내용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의 보고인 것으로 믿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 즉 저자의 역할을 괄호에 넣어 마치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 자체가 진리 가치를 보장받은 것처럼 권위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고와 참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객관적인’ 교과서를 강조하였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문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자의 목소리가 담긴’ 교과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그러나 저자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저자의 고유한 목소리를 담는 것과, 저자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를 정설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료에 대한 저자의 고유한 종합, 해석, 혹은 묘사 등이 객관적이라는 명분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견해라는 전제하에 책임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왜 자신이 그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들과의 차이를 명료히 밝혀야 하며, 그 관계를 드러내어 ‘맥락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빠뜨림 없는’ 교과서에서 ‘흐름이 있는’ 교과서로

기존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방식이 지닌 특징 중의 하나는 일정한 지면에 소개되는 개념이나 사실, 원리 등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이다. 학습자의 사고의 흐름이나 탐구의 단계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알아야 될 사실들, 원리들의 집합체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주제나 개념들을 단지 거명하거나 주요 사건들을 피상적으로 훑어내리듯 제시하는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사고를 하도록 촉발시키기보다는 주어진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에 급급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에서 접하는 내용이 사이버(cyber)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무한한 정보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빠뜨림 없는 교과서’ 대신 ‘흐름이 있는 교과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구조와 맥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이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역사적 사건들, 특정 왕조의 치적들, 제도의 사례들에 접한다고 하여 수준 높은 역사 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의 지하 자원, 기후, 지형 등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지리에 대한 안목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요소를 줄이고, 대신 일단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제시해야 한다. 특정한 단어나 문장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의미를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표현된 맥락에 따라 그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해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과서의 경우, 학습자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원한다면 그로 하여금 적절한 맥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구조 속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이 제시해야 많이 학습할 것이라는 기대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배움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와 욕구, 그리고 능력을 간과한 논리이다.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에서 할 일은, ‘많은’ 정보를 빠뜨림 없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습의

**교과서 집필자는 자신의 수준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그것에 이를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 줄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 이해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방식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의  
거듭나기를 돕는 구성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방법과 가치, 그리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실들을 쏟아붓듯 부과하여 어린 학습자들의 마음을 고사시키고 점차적으로 그들을 ‘배움’의 적이 되게 만드는 현재의 교과서 구성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설명형’ 교과서에서 ‘소재 제공형’ 교과서로**

일반적으로 현행의 교과서는 최근의 이론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함축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의 지극히 제한된 지면에 방대한 학문의 결과들을 선별적으로 소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핵심적이고 확실한 원리나 개념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응집력 있게 제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핵심적인 원리나 개념을 터득하게 하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 바로 그 원리 혹은 개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암기하고 내면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일까 하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교과서의 내용을, 마스터(master)해야 될 정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식의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 혹은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방식을 취하는 교과서를 ‘설명형 교과서’라고 칭할 수 있겠으며, 이 때 교과서의 내용은 학습 목표에서 추출된 세부적 요소들을 논리 정연하게 제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룰 것이다. 반면, 후자의 방식을 따르는 교과서는

‘소재 제공형 교과서’라고 할 수 있으며,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들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의 실질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만 그 의미가 발현되게 된다. 이러한 소재적 가치를 가지는 교과서의 내용들은 논리적인 계열성을 지니기보다는 학습자들의 인지 발달의 순서, 질문의 순서 등 경험적인 계열을 기초로 조직, 전개된다.

설명형 교과서가 개인적인 관심, 해석, 활동 등 학습자의 주체적인 역할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데 비해, 소재 제공형 교과서는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당사자적인 관여를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4. ‘최신형’ 교과서에서 ‘거듭나기형’ 교과서로**

기존 교과서는 항상 가장 최근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체가 다시 쓰여짐으로써 그것을 있게 한 혁명의 역할뿐 아니라 그것의 존재마저도 가려 버리는 비역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그러한 교과 내용 역시 인간의 해석의 산물이고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사고 방식은 창의적인 과학자, 예술가, 발명가들이 지니는 사고 방식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최신의 이론만을 중심으로 다시 쓰여지는 교과서 구성 방식은 학생들에게 그릇된 지식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인식 주체자로서

각자가 담당해야 할 의무나 자신감 등을 길러 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이론 혹은 아이디어에 대해 소개할 때, 가장 최신의 것만을 재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인 것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탄생시키기까지의 역사와 그에 개재되었던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요인들의 영향, 그리고 적대 가설이나 이론, 쟁점 등을 연관시켜 이론의 거듭남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정상의 학자 집단에 의해 밝혀지고 공유되고 있는 최신의 지식을 초보자들에게 한 조각씩 가르치는 것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의 일련의 정보 덩어리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그것은 학습자의 인식론적인 상태와는 무관한 것이며, 결국 ‘교화(indoctrination)’나 다름없는 기능을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자는 자신의 수준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그것에 이를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 줄 필요가 있다. 즉 집필자의 수준에 의거한 최선의 해석을 일거에 제시하는 방식 대신, 학습자의 수준에서 가능한 이해 방식을 토대로 하여 학습자의 거듭나기를 돕는 교과서의 구성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IV. 맺음말

우리의 학교 교육을 이끌어 오고 규정지어 온 여러 규범과 활동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의 구조를 이루어 우리의 행동과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에 대한 사고 방식은 지나치게 편협하고 경직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과서는 학생이면 누구나 배워야 할 보편적인 진리 체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교육 활동은 곧 교과서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

라는 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관은 교육 목표나 활동, 평가에 대한 관점과 함께 어우러져 지난 수십년 동안의 우리 학교의 실재를 구성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 이론 및 인식론의 흐름과, 가속화되는 첨단 통신기기의 발달,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가치관의 변화 등은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기존의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안형 구성 방식들은 ‘가르쳐야 할 내용’ 혹은 ‘학습해야 할 내용’에 주인의 자리를 내주었던 학생 및 교사들에게 교육의 주체로서의 자리를 복권해 주고자 하는 대전제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주인의 자리를 누렸던 교과서에 담긴 지식이나 기술들은 교육을 위한 ‘소재’의 성격으로 재위치시켰다.

지금까지의 교과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가치의 구현이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소용되기 적합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학습되었다면, 이 글에서 제시한 대안적 구성 방식에 의거한 교과서는 교육 그 자체의 가치와 논리를 구현하는 데 보다 적절한 특성을 지닌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필자가 제안한 대안적 구성 방식은, 학교 혹은 교과서에 대한 서로 다른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여러 기대 중 특히 ‘교육’ 고유의 가치를 본위로 하는 견지에서 구안해 볼 수 있는, 좋은 교과서의 방향을 이념적인 수준에서 제시해 본 것이다. 실제로 여러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여러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핵심으로 하여 교과서를 개발할 것인지 등은 차후 교과서 정책 입안자들과 교과서 집필자가 신중하게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sup>25</sup>



# 수준별 교육 과정의 도입에 따른 교과서의 성격과 기능

김 왕 근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수준별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하여 학습 내용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근본적인 의의를 두고 있다. 즉, 학습 능력과 학습 내용간에 상승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는 것이다. 학습 능력에 비해 학습 내용이 어렵거나 쉬울 경우에는 상승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승적인 상호 작용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과 학습 내용 수준이 대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개념적으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해(학습)의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과 이해의 깊이가 깊다는 측면, 즉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한다는 측면을 지닌다(물론 이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두 측면이 분리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학습 능력에 대응하는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학습의 속도(속진 또는 지진)에 대응하는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의 깊이(심화 또는 보충)에 대응하는 학습 내용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학습 속도에 대응하는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은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이는 학생에게는 그에 알맞는

차상급 단계의 학습 내용을 학습 속도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학습의 깊이에 대응하는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해도가 깊은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또는 관련되는 학습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교과용 도서는 교과별로 어떤 유형의 수준별 교육 과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기본적인 특성을 달리하게 되는 바, 단계형이 적용되기로 되어 있는 교과와 경우에는 교과 내용의 난이도 위계나 논리적 위계에 따라 학습 내용을 구성·제시하는 것이 적합한 반면, 심화·보충형이 적용되기로 되어 있는 교과와 경우에는 교과 내용의 계열적 또는 영역 합산적 통합을 토대로 확산적인 또는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제시하는 것이 적합하게 된다.

## 1.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성격

단계는 교과 내용의 난이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학생의 학습 능력 수준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환원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



하는 난이도 수준(학습 능력 수준)은 상대적 순서로서의 수준의 뜻을 지닌다. 차상급 단계와 차하급 단계의 관계는 시간적 선후 관계의 의미와 교과 내용의 난이도 관계를 상대적으로 나타내 주는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각 난이도에 대응하는 학습 능력 수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하급 단계의 학습에서 차상급 단계의 학습으로 이행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기보다는 학습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다른 내용을 학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단계형 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교과서는 교과 내용을 선행적으로 위계화해서 속진 또는 지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은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 과정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단계형은 학급 간 동질 능력별 집단화의 방법을 취한다. 이는 학년제를 전제로 동일 학년에서 동일한 학습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같은 학습 단위로 하여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어떻게 동질적인 학습 능력 집단을 구별하여 선발해 내느냐에 초점이 있다. 다시 말해, 차상급 단계를 이수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서 동질적인 학습 집단을 구성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어떻게 차별화 해서 편성·적용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따라 제공되는 교과서는 학년에 대응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년과 무관하게 단계에 대응해서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같은 5학년이라 할지라도 10단계용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이 있는 반면, 9단계 또는 8단계를 배우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즉, 한 학년에 여러 단계의 교과서가

동시에 제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현행과 같이 학년 또는 학기를 기준으로 편찬하는 대신 단계를 기준으로 편찬한다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 안에 따르면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단계의 재이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이수의 기회는 1회로 한정하여 재이수를 한 연후에 또다시 삼수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이수를 하고도 요구되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삼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습 결손을 보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이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학부모의 동의 하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차상급 단계를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역시 학습 결손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이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결손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한 단계가 끝나는 때 학기말(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별도의 특별 보충 과정을 설치해서 결손된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충 과정용 교과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 보충 과정용 교과서를 개발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2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기준이고 둘째는, 학습 내용을 편집하는 ‘형식’과 관련된 기

**심화와 보충의 관계는 학습 내용의 범주가  
동일하다는 공통점을 지니면서 동시에 요구하는 학습 능력의 수준이  
차별화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과 능력이 결합된 형식을 취한다.**

준이다. 내용과 관련된 기준에 따르면, 특별 보충 과정을 편성하는 방식은 각 단계의 교과 내용과 동일한 범주를 유지하면서(이 말은 학습 요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해의 수준을 낮게 하는 방식과 각 단계의 교과 내용 범주를 줄이는(이 말은 학습 요소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함) 방식으로 나뉜다. 그리고 형식과 관련된 기준에 따르면, 특별 보충 과정을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통합해서 하나로 편집하는 방식과 별도의 보충 과정용 학습 자료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A, B, C, D 4 가지 방식에 따라 특별 보충 과정용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특별 보충 과정용 학습 자료의 개발 방식〉

		내용 기준	
		동일한 내용 범주	축소된 내용
형식 기준	별책 형식	A	B
	합본 형식	D	C

## 2.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성격

심화 보충형 교육 과정은 기본 과정으로 주어진 선행 학습을 토대로 학습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개별화 학습으로서의 후속 학습이 심도 있게 또는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 차별적이라는 말은 교육 과정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학습 내용에 대해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학습 능력이 다르다는 면에서 차별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학습 능력의 차별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교육 과정이 곧 심화 보충형 교육 과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심화 보충형 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교과서는 학습 능력의 차별화를 중심으로 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가 된다.

심화와 보충은 선행 학습 활동에 관한 심화와 보충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심화 학습 및 보충 학습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과정에 대한 선수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무엇무엇을 학습한 연후에 그 무엇무엇에 대한 심화 또는 보충이 따라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미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 또는 성취 수준의 차이가 나타날 때, 그러한 차이에 대응하여 심화 또는 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과정의 차별화를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화 보충의 의미는 기본 과정의 하위 과정으로서의 심화 보충 과정에 기초하는 방식(하위 과정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본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한 연후에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위 과정 방식〉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보충 과정

이러한 맥락에서 심화 보충형 교과서는 분절적인 정보와 지식을 나열하고 있는 내용 중심의 교과서가 아니라 내용과 학습 능력이 통합되어 있는 소재 중심의 교과서라는 차이점을 지닌다. 요컨대, 심화와 보충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교과 내용의 범주가 아니라 학습자의 차별적인 학습 능력이 된다. 따라서, 심화와 보충의 관계는 학습 내용의 범주가 동일하다는 공통점을 지니면서 동시에 요구하는 학습 능력의 수준이 차별화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과 능력이 결합된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 사이에 나타나는 수준차는 동일한 범주의 교과 내용(기본 과정)을 학습하는 학생들 간에 나타나는 학습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바, 보충 학습은 기본 과정의 내용을 동일하게 또는 단순화한 상태에서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학습 능력 수준을 낮춘 학습이 되고(예를 들면, ‘단순히 이해하거나 또는 암기’하는 과정), 역으로 심화 학습은 기본 과정의 내용을 동일하게 또는 복잡·확대한 상태에서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학습 능력 수준을 높인 학습이 된다(예를 들면, ‘외삽적 추론이나 분석, 적용, 종합’하는 과정). 즉, 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의 차이는 동일한 학습 내용 범주 하에서 요구되는 학습 능력의 수준을 차별화 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다.

심화 보충 과정의 학습 단위 편성은 같은 반 내에서 분단(또는 조)별로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달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심화 보충 학습은 자기 주도적인 개별화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은 학급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주를 학습하되 학습의 깊이와 폭이 심화 또는 보충적으로 차별화되도록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화 학습 활동과 보충 학습 활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수준별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따르면, 보충 학습은 교사 수준에서 기본 과정을 복습하거나 재구성하여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교육 과정 및 교과서 수준에서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심화 학습 자료는 기본적으로 간학문적 통합 원리와 맥락적 구성 원리를 따라 심화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적인 학습 능력에 대응하는 개별화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기본 과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맥락적 이해를 통해 심화 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 3. 교과서 내용 구성의 기본 방향과 원리

#### 가. 학습자의 경험과 연계된 소재 중심의 교과서

학습은 경험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학습자 자신의 현재적인 경험 세계와 학습 내용으로서의 새로운 경험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곧 학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으로서의 경험의 성장은 학습자의 현재적인 경험 세계와 새로운 경험 세계가 어떤 관련 속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새로운 경험 세계가 불일치하거나 일치할 경우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적절한 일치와 불일치가 동시에 조건지워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교과서는 학습자의 경험 세계에 기초하는 동시에 적절한 불일치를 담고 있는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다.

학습자의 경험에 근거한 구체의 추상 과정을 통해 결과로서의 지식을 자신의 경험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소재를 담아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말과 ‘학습 소재’라는 말은 사실은 동의 반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왜냐 하면, 학습 소재는 필연적으로 현상과 구체에 원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습 내용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학습 소재는 그 자체로서는 어떤 규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학습 내용은 그 자체로서 학습 목표와 수단적인 관련을 맺는 것으로서 학습의 결과를 선행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임에 반해, 학습 소재는 학습 목표 또는 학습 내용과 도구적인 관련을 맺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학습의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자유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한 학습 내용은 자유의 속성, 자유의 조건, 자유의 정의, 자유와 구속의 관계,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규정적인 지식들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과 범주를

달리하는 다른 학습 내용이 동시에 끼여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습 소재는 ‘세장 속에 간혀 있는 새 소리와 자연 속에 있는 새 소리를 담고 있는 청각 자료’나 ‘노예들의 일상 생활을 담고 있는 사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것으로서 자유와 관련지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소재도 학습 소재로 다루어지는 것을 허락한다.

따라서, 학습 내용 중심의 교과서를 학습하는 과정은 설명적이거나 연역적인 과정이 중심이 된다. 학습 내용은 학습의 출발점이자 곧 학습의 종점이 된다. 다만 출발점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종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차이점이 기대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학습 소재 중심의 교과서를 학습하는 과정은 탐구적이면서 귀납적인 과정이 된다. 학습의 출발점에는 학습 소재가 놓여 있지만 종착점에서는 소재와는 논리적으로 무관한 숨어 있던 학습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요컨대, 학습 내용 중심의 교과서는 교사 중심의 일제식 또는 설명식 교육에 보다 적합한 반면, 학습 소재 중심의 교과서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또는 발견 학습에 보다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 나. 학습자의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교과서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은 객관화된 정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종착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탐구하고 자신의 세계를 구성해 가는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이른바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열린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교과에 들어 있는 교육 내용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며, 자신의 학습 능력에 맞

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 능력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 자신의 문제 의식과 시각에 따라(교사 또는 타인의 문제 의식과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 소재에 들어 있는 문제를 탐구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정답이 들어 있는 교과서가 아니라 확산적이고 개방적인 궤적을 학습자 스스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를 요청하는 것이다.

Resnic(1987: 3)이 말하는 사고력의 특성을 보면, (1) 사고의 과정은 정해진 특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2) 복잡하며, (3) 상황에 적합한 미묘한 판단과 해석을 따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4)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며, (5) 자기 규제적이고 자기 수정적인 과정을 통해 스스로 혼란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Resnic의 주장 역시 사고의 과정은 확산적이고 상황 지향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Resnic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학습 자료 선정과 질문 구성의 적합성에 따라 달성 여부가 좌우된다.

즉, 어떤 학습 자료를 선정하여 어떤 질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문제 의식과 사고를 통한 탐구 학습 여부가 좌우된다. 개념을 학습함에 있어 학습자의 문제 의식과 사고를 통한 탐구 학습은 탐구의 대상이 되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재를 제시하고 질문을 부과하여’ 학습자 스스로 개념을 탐구(구성)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비판적인 사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교과서  
현대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는 삶의 윤리라

고 말해질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습 소재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비단 이러한 중요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학습 능력으로서의 사고력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논리적 추론이나 반성적 사고, 그리고 가치의 판단 등은 모두 비판적 사고의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Eniss(1962: 32)가 말하는 비판적 사고(진술의 평가)의 12개 관점이나 Bayer(1988: 57)가 말하는 비판적 사고의 규칙들은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질문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바, 그런만큼 비판적 사고를 동원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소재를 구성하고 그에 적합한 질문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학습은 지식의 단편을 암기하거나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학습 소재 또는 학습 내용을 매개로 학습자의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발달된 사고 능력에 의거하여 더욱 수준 높은 학습 소재 또는 내용과 상승적인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매개로 새로운 지평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지평은 발달된 사고 능력에 의해 지양되고 지향되는 연속적 과정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있는 학습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내용이 통합된 학습 자료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다.<sup>23)</sup>

# 내가 바라는 교과서

최 윤 화

창덕여자고등학교 학생

TV, 라디오, 신문……. 온갖 대중 매체는 학교 밖에서 학교 안을 비난하고 있다. 학교가 흔들리니, 붕괴하니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정작 변화해야 할 내부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속화되는 흔들림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일부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불신이라고, 요즘 아이들이 예의가 없어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수업 내용이 재미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업 내용의 주체가 되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이 시작되어도 교과서를 펴지 않고, 심지어 사물함에 있는데도 귀찮아서 꺼내지 않는 아이들. 또 교과서 표지의 과목 이름을 ‘국어’에서 ‘북어’로 바꿔 놓으면서 “이게 진짜 북어면 끓여서 맛있게 먹기라도 하지.”라고 거침없이 내뱉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작은 숫자도 아니지만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조그마한 균열이 모여서 건물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아이나 교과서를 받을 때에만 보는 아이나 입을 모아 교과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하는지 크게 내용적인 부분과 외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첫째, 교과서 전체의 분량을 줄이자.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과서 분량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하거나 아예 뒷부분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예를 들어 국어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준비 학습, 학습 활동, 말하기·듣기, 쓰기 부분은 당연히 하지 않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다. 선생님께서 본문만 설명하셔도 학기말까지 진도를 마치는 것은 선생님의 곡예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해 주려는 의도겠지만, 학생들은 방대한 양을 흘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모두 흡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편하자.

슬레임 반, 걱정 반으로 새 천년을 기다리던 순간도 이미 몇 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영어 교과서에는 아직도 ‘2000년대를 내다보며’라는 단원이 있다.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좀 더 진취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원한다. 시간이



호르면 바뀌어야 하는 내용도 생기기 마련인데, 더군다나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니 멀리 내다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대 지난 내용을 배우게 해도 되는 것인가. 또 윤리, 사회 등의 교과서에 실린 통일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이 대부분 알고 있거나 거의 비슷하다. 요즘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통일 교육의 부족이 그 원인이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만이라도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즉, 6·25 전후부터 현재 남·북 대치 상황까지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북한을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으로 개편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 추상적인 탐구 활동에서 기본적인 이론으로 개편하자.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어떤 현상을 탐구하여 그 안의 규칙이나 이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공통 과학 교과서가 그 불가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공통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이 네 과목의 기본적인 이론을 가르쳐야 하는데 교과서 내용은 실험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많은 실험을 실제로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실험을 하더라도 그 안의 이론을 끌어내기에는 학생들의 지식 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는 뒷전이고 프린트로 수업을 대신하고 있다. 혹시 프린트가 아닌 교과서로 수업을 한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그 다음해에 과학 선택 과목 학습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만을 실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주요 내용은 이론으로, 사이사이에 탐구 활동을 넣어서 더 이상 프린트가 교과서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넷째, 실용적인 내용을 첨가하자.

앞 문단에서 언급한 공통 과학 교과서가 지나치게 실용적이라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국사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뿐이라 하겠다. 역사적인 사건을 무조건 서술한 것보다는 그 사건의 주요 인물, 배경들로 엮은 예화를 보여 준다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대부분이 역사는 무조건 따분하고 재미없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교과서에 이런 예화들이 첨가된다면 보다 즐거운 수업이 될 것이다. 윤리, 사회 교과서의 경우 이런 예시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모든 교과서로 점차 확산되길 바란다.

다섯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자.

청소년 시기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기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기도 한다. 이 때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학 문제나 직업 등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게 될수록 불안감도 줄게 되고 삶의 목표나 학습의 목적이 뚜렷하게 된다. 물론 가정, 가사 교과서에서는 장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좀더 폭넓게, 많은 내용이 다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국사 시간, 특히 일제 강점기 부분을 배울 때에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웬지 모를 침체 속에 빠지게 된다. 그 이유는 국사 교과서에서 우리 민족이 힘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역사를 왜곡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민족의 훌륭한 모습도 보여 주길 바란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이 지배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강대국의 불합리와 부도덕에 대해 알려 주길 바란다.

**청소년 시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기도 하고,  
많은 기대를 하기도 한다. 이 때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알찬 내용의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과서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한 높이자.

국사, 사회 교과서처럼 다른 교과서도 중요한 단어나 문장은 굵고 크게 인쇄되었으면 좋겠다. 한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쉽고 수업할 때에도 핵심 내용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자료 사진이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색도가 컬러이길 바란다. 물론 미술 교과서는 지금도 컬러이지만, 국사, 지리, 과학 교과서에는 지도, 도표를 적극 활용시키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서는 단지 지면으로 모든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를 얼마만큼 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둘째, 모든 교과서의 크기와 두께를 통일시키자.

지금 교과서의 직사각형 형태는 대부분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원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교과서의 크기는 고등 학교 ‘국사’ 교과서(가로 165mm, 세로 235mm)가 손에 잡기도 쉽고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크기로 생각된다. 또 두께도 10mm 정도가 알맞은 것 같다. 국어 교과서의 경우 너무 두꺼워 책을 펴기에도 힘들고 무겁다. 그리고 학기말이 되면 낱장으로 분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사 상권, 하권처럼 얇게 여러 권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셋째, 표지는 두껍게, 교과서는 낱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자.

학기말이 되면 교과서들은 너털너털해진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은 교과서 표지 위에 비닐이나 종이를 덮어씌운다. 하지만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포장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교과서 표지도 좀더 두껍게 코팅되어 나온다면 이중으로 된 표지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가 두꺼워서이기도 하지만 체본을 좀더 잘해서 교과서가 낱장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고등 학교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부분을 설명하였다. 어떤 것이라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 여러모로 편리하다. 언제나 변화란 시간, 경비 등 번거롭고 귀찮은 수고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대상이 ‘교과서’ 개편이라면 더욱 조심스러워지게 된다. 하지만 수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인 교과서 자리를 프린트와 참고서들이 침범하여 교과서가 소외되고 있는데도, 교실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조심스러움을 핑계로 미룰 수밖에 없을까.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흔들리는 교실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학생이 바라는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sup>24</sup>

# 북한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 제도

한 만 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 I. 중앙 집권적인 북한의 교육 과정

북한의 교육 과정 개발은 철저하게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당과 수령의 교육 지침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며, 중앙 집권적인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다. 국가가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제정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과정의 운영에서 우리보다 융통성이 없으며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보다 중앙 집권적인 경향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문건은 교육 강령이라고 하는데 교육 강령은 과정안과 교수 요강으로 구분된다. 과정안은 우리의 교육 과정 총론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학과목과 목적, 그리고 학년별 배열, 시간 배정, 교수 형태, 학업 진행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수 요강은 우리의 교과별 교육 과정에 해당하며, 과정안에서 제시된 학과목의 목적과 과업, 교육 내용의 범위와 깊이, 교수 제목별 시간 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수 요강에서는 학과목의 교수 방법, 학과목의 장, 절, 항목의 체계와 내용 구성, 중심적인 개념, 법칙, 원리, 원칙, 교수 제목별 시간 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하여 가장 오래 된 자료로서 1950년 4월 8일 자로 공포된 「고급 중학교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과목과 교수 시간 및 내용은 교육성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과서도 교육성에서 편찬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이후에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교과목의 편성과 과목별 내용의 선정,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의 개발은 모두 중앙 집권적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현재까지 입수된 것 중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 문서인 인민 학교 및 고등 중학교용 「과정안」(1983년 3월 발간)을 보면 ‘교육 위원회 보통 교육부’(현재는 교육성으로 변경)가 발행 기관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교육 과정은 철저하게 중앙에서 개발하며, 그 운영 과정에 있어서 지방이나 교사의 재량권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위하여 교수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교수 계획은 교수 진도표와 교수안의 작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교수 진도표는 우리가 말하는 수업 지도안에 해당한다. 교육 강령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교사들이 한 학기 동안 시간 단위로 수업의 진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학」

에서는 교수 진도표의 작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① 교수 요강의 매개 제목에 따르는 교수 진행 계획을 면밀히 세운다. ② 교수 제목과 그에 배정된 교수시간수와 매 교수에서 취급할 교수 제목을 정확히 밝힌다. ③ 교수 시간 단위로 교수 형태를 정확히 밝힌다. ④매개 교수에서 관찰하여야 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말씀을 밝혀야 하며 교수에서 결부시켜야 할 현실 자료를 밝힌다. ⑤ 교수에서 이용할 직관 수단들과 참고 서적을 밝힌다. ⑥ 교수 계획의 집행 정형을 밝힌다.

또한 교사는 교수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교수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안은 우리가 말하는 차시별 수업 지도안이다. 교수안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교수 제목을 밝힌다. ② 해당 교수의 교육 교양적 목적과 과업을 밝힌다. ③ 교수 내용과 관련되는 기초 지식과 실천적 경험의 설명을 사전에 준비한다. ④ 교수 단계를 예비 단계, 기본 단계, 마무리 단계로 설정하여 단계에 따라 교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이렇게 작성된 교수 진도표와 교수안은 학과 교원의 전체적인 토론을 거치고 분과장(교과주임에 해당)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탈북 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고등 중학교 교사들은 교수 지도안을 작성하는데 한 학기 당 보통 노트 80쪽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또한 분과장의 결재를 받는데 내용은 대체로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교사 자신의 전공 영역에 따라 특정 분야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한다.

북한의 교육 과정 개발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중앙 집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안과 교수 요강은 당과 김일성의 교시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당과 김일성에 의하여 제시되는 교육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과정의 개발과 교과서 편찬은 내각 산하의 교육성 보통 교육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정부의 임명 하에서 교육 과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교육 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자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중요한 임무는 당과 김일성의 지침에 따라 구성된 교육 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육 강령의 의도와 지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인 것이다.

## 2. 절대적 권위를 지닌 교과서

북한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보면 국가가 규정하는 공식적인 교육 내용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모든 교과서는 남한의 ‘국정’ 교과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 교과에 1종류의 교과서 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 교과서에는 김일성의 교시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교과서 개발 주체는 국가이며, 철저하게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 교과서 개발 체제는 교육 위원회에서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거친 후에, 출판 기구에서 인쇄를 담당한다. 교과서 개발 부서는 교육성 산하의 보통 교육부 교육 지도처, 출판 지도처가 있는데, 교육 지도처는 남한의 학교 정책실에 해당하며, 출판 지도처는 과거의 편수국, 즉 교육 과정 정책 심의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지도처는 교육에 관한 주요 지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출판 지도처는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구성의 방향을 결

정하고 교과서에 대한 심의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별도의 출판처가 있어서 교과서 발행 및 인쇄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교육 도서 출판사에서 발행, 출판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는 ‘집필을 집단적으로 하고 심의를 대중적으로’하여 완성한다는 집단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자의 구성을 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 1~6명 정도로 되어 있으며, 교과서 판권을 보면 이들의 학위학직이 명시되어 있다. 교과서 심사는 공식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2~6명 정도에 위임하며 실시하고 있다. 다음의 교과서 판권 정리를 보면 집필과 심사 이외에 편집자, 장정, 그림, 교정 담당자까지 명시하고 있다. 편집자는 교과서 내용과 체제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자로서 교과서의 편찬 목적에 따라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북한 교과서의 서술상의 특징을 보면 수학과 과학 교과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서두에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교시가 인용되는 방식은 교과서 서두에 제시되거나, 매장 서두에 제시되기도 하며, 또는 교과서의 내용 기술 중간에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교시’의 인용 부분은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하여 진하고 큰 활자로 인쇄하거나 고딕체로 인쇄하기도 한다. ‘교시’의 내용은 새로운 이론이나 김일성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실이나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것은 사상 교양의 기본 방법의 하나이다.’라는데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을 긍정적 모범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사상과 행동을 따라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 3. 북한의 경제난으로 조잡해진 교과서 형식

현재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여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며 거의 모든 교육 물자들이 부족하다. 북한의 교과서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교과서의 지질은 우리가 지난 60년대 이전에 사용하던 마분지와 같이 거무스름한 용지로서 인쇄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잡한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교육 물자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과서 용지를 지원하든지,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교과서를 우리가 인쇄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교육 과정 편제에 의하면 유치원 8개 교과, 인민 학교 10개 교과, 고등 중학교 21개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교과는 학년별로 1종의 교과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인민 학교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교과, 공산주의 도덕, 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 공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인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약 30종류가 될 것이며, 고등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약 60종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교과서의 체제와 형식을 보면 크기는 남한의 국판 크기와 비슷한데 지질이나 편집이 조잡하여 외형적으로 볼 때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교과서 크기는 남한의 국판에 해당하지만 교과서 종류에 따라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작은 것의 크기는 14cm×21cm 정도이고

큰 것은 16cm×22cm 정도로서 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교과서 제작 기술상의 문제로 보인다. 글자 크기는 남한보다 작은 편이며 그림 제시 빈도가 적다.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은 모두 삽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진 자료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쇄 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교과서 제작에서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 교과서의 판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북한의 교과서 판권 정리

과목 (학년)	집필, 심사, 편집, 장정, 그림, 교정	낸곳 인쇄	인쇄일 발행일	일련번호 가격	부수 쪽수
공산주의 도덕 (고중 4)	집필 : 준박사 향상유, 고수길, 정혜숙 심사 : 심의위원회 편집 : 리장호 장정 : 박인옥 그림 : 박찬규 교정 : 김옥화	교출 교인	95. 6. 1	보-95-ㄱ 20전	71 쪽
국어 (고중 1)	집필 : 전장길, 문재홍, 황철명, 리광선 편집 : 김창덕 장정 : 박인옥 그림 : 리창엽 교정 : 강태선	교출 교인	96. 11	보-96-40 30전	132 쪽
김일성 어린이절 (인민 1)	집필 : 강홍수 심사 : 국가심의위원회 편집 : 정인숙 장정 : 박인옥 그림 : 박찬규 교정 : 정명숙	교출 교인	92. 1. 8 92. 1. 18 7판	보-91-680 40전	60 쪽
김정일 혁명력사 (고중 6)	집필 : 백치봉, 박원근 편집 : 박태활 장정 : 박인옥 교정 : 전명숙	교출 교인	95. 9. 19 3판	보-94-32 40전	107 쪽
조선력사 (고중 2)	집필 : 리인형 그림 : 김양번 편집 : 최창길 장정 : 박인옥 교정 : 김옥화	교출 교인	95. 6. 20	보-95-ㄱ-4 20전	88 쪽
지리 (고중 1)	집필 : 준박사 박홍준 편집 : 정영근 그림 : 리선규 장정 : 박인옥 교정 : 정전숙	교출 교인	91. 1. 3 91. 1. 14 5판	보-88-113 45전	87 쪽
영어 (고중 6)	집필 : 임중관, 최양용, 리수성 심사 : 영어교과서심의위원회 편집 : 최양용 장정 : 리승일 그림 : 리선영 교정 : 김지순	외출 평양 고등 인쇄	90. 4. 20 90. 4. 26 3판 1판 88.3	고-89-693 45전25	270000부 126 쪽

[주] '교출'은 교육도서출판사, '교인'은 교육도서인쇄공장, '외출'은 외국문서출판사, '평양고등인쇄'는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을 지칭함.

교과서의 보급 경로는 지방 교육 행정 당국과 학교 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교육 당국에는 교육 도서 및 기자재 보급 담당 부서가 있으며, 시·도 및 군 지역에는 교육 도서 및 기자재 보급소가 설치되어 있다. 교과서 공급은 유상이며, 인민 학교 교과서가 10~50전 정도이고, 고등 중학교 교과서는 10~90전 정도이다. 사회주의 교육 체제에 의하면 교과서와 학용품은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상 공급이고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여 학생들에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 정도이다. 또한 교과서는 다음 학년도에 사용할 학생들에게 인계하는데 인계 과정에서는 교과서 대금을 또다시 받는다고 한다. 21



## 도덕과 교과서 개편

안 귀 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필자가 문교부 편수국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은 1973년 7월이었다. 편수국 편수관 실은 종합 청사 10층 맨 남동쪽 방에 있었다.

필자가 편수국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이미 초등 학교 교육 과정을 개정 공포한 이후였으며(1973년 2월 14일 공포), 중학교 교육과정도 개정 공포의 단계에 있었다(중학교 교육 과정은 1973년 8월 31일자로 공포됨). 그리고 고등 학교 교육 과정은 필자가 개정에 참여한 이후인 1974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었다. 중·고등 학교 교육 과정의 개정 공포는 검인정 교과서 집필에 관심을 가진 대학의 교수들과 교과서 출판을 주업으로 하는 출판사 사장들에게는 최대 관심사였다.

교육 과정과 도덕과 교과서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교육 과정 담당이라야 혼자서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어서 형식적인 분담이었다. 교과서 편찬은 필자에게는 거의 경험이 없는 생소한 업무였다. 편수관은 모두 교과서 편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업무 분담 규정(?)이 있었는지 필자에게 초등 학교와 중학교 도덕 교과서, 그리고 고등 학교 국민 윤리 교과서 편찬 업무가 주어졌다.

교과서 명칭은 대부분 교과목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독 도덕과 교과서는 그 명칭이 교과 명칭과 달랐다. 초등 학교 도덕 교과서는 ‘바른 생활’이었고, 중학교 도덕 교과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민주 생활’, 다른 하나는 ‘승공 통일의 길’이었다. 고등 학교 국민 윤리 교과서 역시 ‘국민 윤리’와 ‘자유 수호의 길’ 두 권으로 나뉘어 있었다.

도덕 교과서의 이름이 교과명인 ‘도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바른 생활’, ‘민주 생활’, ‘승공 통일의 길’, ‘국민 윤리’, ‘자유 수호의 길’ 등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도덕과(국민 윤리 포함)는 처음에는 독립된 교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초등 학교는 ‘반공 도덕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과정의 한 영역으로 되어 있었으며, 중학교는 사회과의 한 단원으로, 고등 학교 역시 사회과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무장 공비 납과 사건 이후 반공 도덕 교육 강화라는 정책에 따라 다양한 반공도덕 교재가 개발 사용되었다. 도덕 교과서 출판사도 책마다 상이하였다. 초등 학교 교과서는 모두 국정 교과서 주식 회사에서 인쇄, 보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유독 ‘바른 생활’ 교재는 고려 서적 주식 회사(사장은 이학수로 5·16 혁명 구호를 인쇄한 업자)가 그 인쇄,

보급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민주 생활’과 ‘국민 윤리’는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가 인쇄, 보급 업무를 맡았으나 반공 교재인 ‘승공 통일외의 길’과 ‘자유 수호의 길’은 다른 개인 인쇄 업자가 출판 보급하였다. 말하자면, 교과서 인쇄 보급이 하나의 이권이었던 기 때문에 그 이권을 정책 결정권자의 편의(?)에 따라 배분해 준 결과였다. 이러한 파행적인 교과서 편수 행정은 1981년 이후에 가서야 시정되었다.

도덕과는 1973년 3차 교육 과정 개정 시에 처음으로, 그것도 수석 교과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도덕과가 교과로 편성된 것은 초·중등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보다 강화하려는 정권 담당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필자가 편수국에 부임하자 당장 해야 할 일이 초등 학교 ‘바른 생활’을 편찬하는 일이었다. 초등 학교 ‘바른 생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2학기용 총 12권을 편찬하는 일이었다.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저학년 교과서의 편찬이었다.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삽화로 표현하는 일이 더 힘들었다. 간단한 일 같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글자 한 자 한 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삽화로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좋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다. 정확하게 기억되지는 않지만, 초등 학교 교과서 편찬 예산은 원고료와 삽화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형편 없는 수준이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2세 교육을 위한 초등 학교 모든 교과서 제작비가 한강 다리 교각 하나의 건설비에도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교과서 제작비가 형편 없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편수관들이 맡은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오랜 편수 경험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교과서 편찬 경험이 없었고 더욱이 교과서 원고 집필자나 삽화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또, 원고료가 적어 이름값이나 있는 대가의 글을 받기는 힘든 일이었으며, 삽화도 이름 있는 삽화가를 동원할 처지는 못 되었다. 모든 일을 예산에 맞추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전부터 도덕 교과서 편찬에 참여해 온 집필자들 가운데 필자가 평소에 잘 아는 분들도 있었기에 도움이 되었다. 필자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이가 서성옥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 등이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도움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바른 생활’은 덕목 교육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덕목들은 1968년에 공포한 국민 교육 현장과 바른 생활 습관의 형성에 필요하다고 합의된 덕목과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바른 생활’은 주로 Modeling 이론에 따라 모범 어린이의 사례나 성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 도덕 교과서는 온갖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교과서가 되었다. 당시에 행정 각 부처에서 교과서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였다. 혼분식 장려는 물론 재무부에서는 저축의 필요성을, 체신부에서는 문패의 중요성을, 국방부에서는 국토 방위의 신성함을, 그리고 중앙 정보부에서는 반공 교육을 강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새마을 정신과 유신 이념은 도덕 교과서의 중요 내용이 되었다.

‘바른 생활’의 편찬에서 논리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던 것은 국가 정책으로 강조된 내용 이외에 덕목의 학년별 배분과 교재 내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바른 생활’ 교재에 담아야 할 내용은 국어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과 교재 수준을 가능한 한 조화시키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학습 경험의 일관성과 계열성의 원리를 반영하는 일이었다. 집필자의 경험과 교과서 심의 위원회 위원들의 조언이 판단 기준이었다. 교과서 편찬 작업에서 지금 생각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반공 교육 소재의 발굴과 그 내용을 교재화하는 일이었다. 초등 학교 반공 교육 내용은 주로 6·25의 경험 사례들이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6·25의 경험 사례는 아동들에게 실감을 줄 수 없는 먼 옛날 얘기였다. 북한 실정에 대한 정보의 빈곤은 교과서 편찬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반공 및 통일 교육의 문제는 지금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가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위로부터 가장 많은 간섭과 통제를 받은 것이 고등학교 교재인 ‘국민 윤리’와 ‘자유 수호의 길’이었다. 고등학교 국민 윤리 교과서에 유신 이념(한국적 민주주의)과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담아야 하는 것이 당위적인(?) 과제였다. 1974년 늦가을로 기억되는데, 청와대 특보실에서 고등학교 국민 윤리 교과서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국민 윤리 교과서 내용을 검토한 특보 한 분이 국민 윤리 교과서가 데모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지적된 내용 중 기억되는 것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서구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자유의 존귀성을 설명하는 글이 있었다. 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대학생들의 데모를 교과서가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에 사용되던 국민 윤리 교과서는 서구 철학 사상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국적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었다. 당장 교과서를 개편해야 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1974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국민 윤리 교과서 개편도 그 이후에 있어야 하는 작업이었다. 국민 윤리 개편 예산은 있을 리 없었다. 당시 교과서 편찬의 경험이 일천한 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세문 국장은 국민 윤리 교과서 개편 작업에 수반되는 행정·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등 필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새로이 편찬된 국민 윤리 교과서 내용 중에 우리의 전통 사상인 성경(誠敬) 사상이 강조된 것은 박종홍 박사의 아이디어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 윤리 교과서의 개편 방향에 관심을 표명, 국민 윤리 개편 작업에 관여하고 있던 특보팀을 격려하였다고 한다. 특보팀이 관심을 가진 교과서는 국민 윤리 이외에 고등학교 ‘정치와 경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승공 통일의 길’과 ‘자유 수호의 길’ 개편 작업도 병행되었다.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공산주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산주의 이론 비판은 가능한 한 최소로 줄이고 공산 사회의 현실 비판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물론 반공 교재는 사전에 정보부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 도덕과 심의 위원회에서는 반공 부분은 도덕과의 내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교과서 심의 위원들의 의견도 없지 않았다. 지금도 이 부분을 도덕과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도덕 분야와 반공 교육 분야에 따른 교과서 분리 문제는 4차 교육 과정 개정 이후(1981)에 하나의 교과서(중학교 ‘도덕’, 고등학교 ‘국민 윤리’)로 통합 제작됨으로써 해결되었다.

교과서 편찬 시 고려해야 할 점은 교과서 인쇄 공정의 편의를 위하여 교과서 면수를 8의 배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32면의 배수로 만들면 좋고 여의치 못하면

16의 배수,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8의 배수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본의 자동화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요구였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교과서 내용을 편집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었다.

교과서 내용 문장의 교정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띄어쓰기 문제였다. 삼합 사분(三合四分)의 원칙(?)을 염두에 두라는 선배 편수관의 조언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교정을 보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편수관들이 넓은 방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질문과 해답을 구할 수 있었다.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교과서는 무오류라는 일반적인 관념이 있었고,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는 날이면 담당 편수관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모든 편수관들은 교과서 내용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필자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교과서 행정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생각나는 점을 두서 없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교육 과정과 교과서 전면 개편이 반드시 주기적으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생긴다. 교육 과정 개선, 보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식 정보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 변화에 맞추어 교육 과정과 교과서는 수시로 언제나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부분적인 수정, 보완 작업으로 충분한 것을 굳이 교과서 전면 개편이라 하여 국어, 수학, 과학 교과서의 경우에도 기존의 글과 내용을 무조건 버리도록 하는 교과서 개편 정책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인 교과서 개편과 검인정 제도의 실시는 교과서 저자나 출판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지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로, 교육 과정과 교과서 업무 담당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장기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인사 정책상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전문 기구가 있지만 교육부에도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10년 이상 또는 정년이 될 때까지 교육과정 아니면 교과서 편찬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 1979년 이후 교과서 편수 업무가 교육부 및 연구 기관으로 분산되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 교체로 말미암아 그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전문적 경험의 누적 없이 좋은 교육 과정 및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

셋째로, 교과서 편찬 업무를 여러 기관에 분담시키는 현재의 교과서 정책은 충분히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교과 과정의 종적 연계성과 일관성 및 교과 간의 횡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교과서 편찬의 총 역할과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의 필요성을 필자의 경험 이야기로 대신하고자 한다. 필자가 편수국에 근무할 당시 전 교과 편수관들이 한 방에 칸막이 없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 내용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었고 교과 간의 내용 중복이나 모순은 쉽게 조정할 수 있었다. 각기 상이한 전공의 편수관들이 함께 자리하고 의사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가장 효율적인 운영 체제라고 생각된다. 편찬 경험 미숙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체제의 도움도 컸다고 생각한다. 23

〈1973~1977 도덕과 편수관〉

## 체육과 교과서의 변화된 모습

한 형 식

전 서울체육고등학교장

### 1. 우리 나라 첫 체육 편수관의 애환

나는 행정 고시를 합격한 이후 1969년 5월 15일부로 우리 나라의 첫 번째 체육 담당 편수관으로 임명받았다. 이 제도는 나의 바로 위 선임자였던 국어 담당 정진권(현 한체대 교수) 편수관 이후 나를 마지막으로 없어진다.

공교육 체제 내에서 체육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체육 교육의 방향 설정과 교육 내용 선정을 담당할 체육 담당 편수관의 필요성을 절감한 중앙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육 편수관을 임용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정 고시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만 하여도 체육 담당 편수관의 업무를 부득이 비전공자인 타과 편수관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그 업무를 관장했었던 분들은 레슬링 국가 대표 경력 소유자였던 임광재 국사 편수관과 만능 스포츠맨인 지리 담당 이영택 편수관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중·고등 학교 교사 경력의 8년 남짓 되었던 햇병아리 티를 조금 벗어난 교사였던 내가 체육 담당 편수관이 되었다는 사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문교부 편수관실로서도 큰 변화였다.

내가 임명될 당시 나의 상급자는 중앙 부서의 행정 베테랑인 이상규 편수 국장님(이후 문교부 차관으로 자리에서 물러남.)이었다. 그분은 나와 첫 대면에서 “체육 편수관을 기용하기 어렵군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아이들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안목과 혜안을 지니도록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편수관이라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곳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12년간의 편수관 생활을 마친 이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는 편수관 생활 내내 상사로부터 들었던 유일한 격려의 말이었다.

처음 몇 달간은 전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막한 기분으로 생활하였다. 지금은 험했지만, 옛날 중앙청 5층에 있는 그 어리어리한 넓은 화장실에 가면 6개월 선배인 정진권 편수관과 종종 대면하게 되었는데, 한참 후에야 안 사실이었지만 당시에 그도 나와 비슷한 심정이었다고 했다.

교직 생활에 익숙해 있던 나는 교직에서의 친밀한 인간 관계를 여기에서도 기대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아무도 나와 나의 업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조인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주변의 선배 편수관님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도움이 안 되어도 좋으니 누군가가 나의 일에 간섭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업무는 내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다.

그들은 무관심하였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였던 것이고, 그만큼 각자의 부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편수관실은 전통적으로 자족(自足)의 노력이 존중되는 자존(自尊)의 자리였다. 타인에게 간섭받기 싫어하고, 타인을 간섭하는 일은 암묵적인 금기 사항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 그 곳에 발을 들여 놓게 된 나를 불편하게 하였지만, 이후 이것은 나에게 그 직업에 대한 일련의 금지를 지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부임한 지 며칠 후 편수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 자료는 유인물로 준비되었지만,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였다. 특히, 선배 편수관님들이 주고받는 말들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능력을 의심해 보기도 하면서 당시에는 고가였던 녹음기를 준비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녹음했다가 다시 듣고 이해해 볼까 하는 식의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반 년이 지나고 나서야 서서히 귀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업무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교과 내용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깔끔한 문장이 쓰여지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당시에 나는 편수관이 부서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야 하는 다른 행정직의 특성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

편수관은 현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개방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원리적이고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지극히 보수적인 자세를 지녀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야 업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편수관 업무와 관련하여 12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편수관의 역할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학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지식, 이론 및 원리를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수용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 현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소상히 살피고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시대와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편수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에서 언급한 현장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의 각기 상이한



주장과 요구를 종합하고, 설득, 조정, 정리하여 우리의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편수관의 역할은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제를 연결해 주는 교량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단상이 들기도 한다.

제 3차 교육 과정기는 격변의 시기였다. 당시 어떤 사회과 담당 편수관은 한때 청와대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고초를 겪기도 하는 등 우리의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체육 담당 편수관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다.

각종 스포츠 종목별 단체, 보건 분야, 무용,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체육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치는 자리에서 원칙과 보편성으로만 그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많은 시간, 자료, 열정, 인내가 필요했다.

또, 정치적 색채를 띤 권력가들의 체육관을 제대로 설득하여야 했는데, 이는 난감한 것을 넘어서 편수관 개인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3공화국 시절 한 정치인은 교육과 교육 과정 지도상의 주의점의 한쪽 구석에 명시된 시간 배당 비율이 1/10이었던 자유 선택(이는 학교장 재량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과목의 공기 소총 사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국정 교과서로 사격 교과서를 발행하자라는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못하자 사적인 사격 교본을 출간하여 일선 학교에 강매하여 보급한 예도 있었다.

## 2. 3차 교육 과정 시기의 체육

3차 교육 과정 시기의 시대 상황은 가난과 굶욕의 한을 일시에 풀어 보고자 하는 질주의 시기였다.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세…….”로 상징되는 당시의 분위기는 세계 속의 한국, 국민 교육 현장, 국적있는 교육, 한국적 민주주의, 수출, 도약, 약진, 체력은 국력 등의 구호와 어울려 모든 국민을 달음박질치게 하였다.

이러한 시대 정신과 고도 성장이라는 당면 국가 목표는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는 체육 교육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아니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한 부분이 체육 분야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체력은 국력”으로 승화되어 이는 교육은 물론 생산, 외교, 문화 현장까지 그 영향력이 확산되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체력’이란 용어가 교육 과정에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력 운동 중 하나인 ‘순환 운동’을 비롯한 육상, 체조, 수영 등도 체력 향상을 위한 종목으로 내용과 체계를 변화시켰다. 또, 태권도, 질서 운동, 민속 놀이 등도 당시에 교육 과정 내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한편, 특이한 것은 “국적 있는 교육”이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씨름, 태권도와 활쏘기와 같은 민족 고유의 무예와 그네뛰기, 널뛰기, 차전놀이, 고싸움놀이, 장치기, 제기차기 등의 민속 놀이가 교육 내용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초등 학교

체육과 교육 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이런 추세가 쉽게 수긍이 될 것이다.

당시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초등 학교 체육의 목표는 이러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하여 강한 체력과 강인한 의지력을 길러 왕성한 활동력과 실행력을 지닌 새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타까운 느낌이 들 정도의 생경한 구호성 문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목표였다. 새벽부터 뛰고 또 뛰어도 지칠 줄 모르는 수출 역군, 산업 역군의 양성이 그 시대가 필요로 한 인간상이었기 때문이다.

또, 3차 교육 과정에서 특히 체육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교육 과정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교육 과정 총론 부분인 편제 및 운영 지침에 명시된 체육 교육 강화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 건강 증진, 체력 향상, 안전 교육도 체육과의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전체에 걸쳐서 전개하도록 한다.”

체육 교과서의 변화도 획기적이었으니 2차 교육 과정 시기까지는 국민 학교 5, 6학년 통합 교과서(보건) 책 한 권이었던 것이 3차 교육 과정 시기에는 국민 학교 3, 4, 5, 6학년용 4권, 중학교 1, 2, 3학년용 3권, 고등학교 통합 교과서 1권이 국정 교과서로 발행되었다.

교과서 내용도 체력 향상, 체력 강화에 역점을 둔 종목이 주를 이루고, 국민 학교에서는 놀이 형식의 게임과 민속 놀이, 보건 등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 당시에 총 50권에 달하는 ‘체육 지도 자료’를 개발한 일은 간과할 수 없는 데, 이는 체육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와 체육 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책들이 출간되면서, 체육 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과학적, 체계적인 지식과 리더십을 지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체육 지도 자료 총서 50권은 5년간에 걸쳐 체육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총동원하여 단 대역사(大役事)사였다. 다음의 머리말을 보면 당시의 체육 교육에 대한 인식이 결연하고 확실히 표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 나라의 부강은 그 나라의 체육, 스포츠의 발전도와 정비례 현상을 나타낸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화랑도 정신을 통하여 삼국을 통일한 고사는 이러한 체육, 스포츠의 기본 이념 아래 이루어진 일이다. 체육, 스포츠의 기본 이념이 그러하듯 한 나라의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전할 때 그 국가나 사회는 커다란 희망과 기대에 차게 된다.

이러한 나라는 평화시에는 생산력으로 능률을 확대하고, 비상시에는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면 체제의 저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크세노폰이나 플라톤의 말을 인용할 필요 없이 우리의 앞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민족 주체적 입장이거나 현시대적 사명감과도 상응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식과 과학 기술이 고도의 발전을 보게 된 오늘에 있어서의 우리의 체육은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문교부는 그 동안 학교 체육과 사회 체육을 강화하여 기본 경기 인구의 저변 확대와 체육을 생활 화하고 과학화하여 스포츠를 진흥시키는 방침 아래 제반 체육 사업을 추진하여 온 바, 그 일환으로 일선 지도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높이는 것이 체육 교육의 지름길임을 깨닫고 이 지도서를 발행한다. 워터루 대전은 이튼 경기장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더듬어 보면서 체육, 스포츠의 진흥은 영광된 조국을 후손에 물려주기 위한 슬기임을 자각하고 온 국민이 체육,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과학화하도록 체육 지도자는 앞장서야 한다. 그리하여 새 시대, 새 사회에 민족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새 국민상을 정립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1973년 12월 문교부).”

여기에서는 체육 및 스포츠가 생활에 활력을 주고 단합된 국력을 상징하며, 특히 국민이 지닌 강한 체력이 평화시에는 생산력을 증대하고 비상시에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국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차 교육 과정 시기의 체육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당면 국가 목표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강인한 실행력을 지닌 새 국민”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로써 이 글을 마감한다. 

〈1969~1977, 1981~1984 체육과 편수관〉

## 영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반성

김 덕 기

고려대학교 교수

제 3 차 교육 과정기(1973~81)는 이른바 유신 정치 시대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민주주의적 의견 수렴 절차는 접어 두던 시기였다. 당시 정치권의 슬로건은 10월 유신, 100억불 수출, 1000 불 국민 소득이었고, 이 구호는 교육 현장에서도 감히 이의를 달 수 없었다. 교육 과정은 국가가 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제2세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짜여져야 했고, 교과서 행정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했다.

한편, 효율성의 면에서 낭비로 보이는 것이 과다한 교과서의 종수(種數)였다. 당시 영어 교과서는 중학교가 17 종, 고등 학교가 21 종이였다.

물론 이 가운데 5 종 이내의 교과서가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고등 학교, 대학 입학 시험 출제가 “교과서 내에서”라는 방침이 계속 천명되면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2~3개 교과서를 교재로 삼아 학교 수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영어의 경우 어떤 시험에서도 특정 교과서의 지문을 사용하여 출제하는 일은 없었지만 지문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문법 사항 등은 어느 교과서에라도 있으면 문제시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 고등 학교 영어 교육을 2500단어 내외로 가르칠 것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어떤 2500 단어”라는 제한은 없어서, 21 종 교과서에 나온 모든 단어를 학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교사와 학생들을 지배했다. 정확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으나, 21 종에 나온 어휘 수는 그 숫자가 엄청난 것이었다. 이것은 학습 부담의 과다라는 문제로 인식되었는데, 그렇다고 뾰족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었다.

학습 부담의 과다는 “과외”라는 국민적 경제 부담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교육의 비효율성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 문제는 비단 영어 과목뿐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과 등 타 교과에서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영어과로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수학, 자연 과학, 사회과 등은 소위 내용 교과로, 어떤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

된다는 것이 대체로 정해질 수 있지만, 영어 등 외국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는 영어 과목도 타 내용 교과와 같이 공통적인 내용을 교육 과정에 제시하여 교과서마다의 변이성을 줄이는 것이었다. 사실상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제시된 외국어 교수법 중 구두 교수법(Oral Approach, Situational Language Teaching)은 기본 어휘와 문형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었다.

따라서, 3차 교육 과정에 West(1952)의 2000 단어 어휘록을 기준으로 약 700 단어의 중학교용 필수 어휘를 선정하여 수록했고, Hornby, Gatenby, Wakefield(1953)의 기본 문형을 중심으로 중학교용 필수 문형을 선정, 수록했다. 이 작업은 몇 명의 교수와 함께 담당 편수관이 주도해서 교육 과정 심의 위원회의 통과를 거쳤다. 이 생각은 철저히 행동주의적 언어 학습론, 구조주의적 언어관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미 몇 년 전에 태동한 정신주의 언어 이론, 중간 언어 이론 등은 한국의 교육 현장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Savignon(1972), Hymes(1971) 등이 “communicative competence”라는 개념을 관련 학회지에 제시했지만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에서도 외국어 교수 방법으로 Oral Approach를 대치하는 교수법은 나오지 않았던 때였다. 3차 교육 과정이 공포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또다른 효율성 방안이 논의되었다.

즉, 교과서의 단일화 작업이었다. 이 안이 논의되었을 때 반대하는 실무자는 없었다. (물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 다만, 단일화 작업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임무였다. 단일화 명령이 떨어진 것이 73년 4, 5월경, 그리고 단일화 교과서의 발행과 공급은 다음 해 2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스케줄에 의하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원고의 탈고, 11월 말~12월 초까지는 인쇄 회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학교 3권, 고등학교 5권 (인문, 자연계 3권, 실업계 2권)의 원고를 5개월만에 완성시켜야 하는 작업 일정이 예상되었다. 그것도 새로 제정한 3차 교육 과정에 맞추어야 한다. 기존 저자, 출판사들의 인세, 이익 지분 등의 분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으나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 큰소리 없이 넘어갔다. 편수관은 기존 교과서 저자 가운데에서 저자를 섭외하고, 원고를 생산하는 책임을 맞게 되었다.

저자 선정의 원칙은 교과서 저작자 가운데 인지도가 높은 분으로 하고, 여기에 영어 원어민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었다. 한국인 저자는 네 분을 모셨다. 엄청난 작업량 등으로 고사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네 분을 모시는 데 성공했다. 서울 대학교의 황찬호, 김우창 교수님(교과서 집필 후 고려대로 옮기셨다.), 그리고 연세 대학교의 나건석 교수님, 그리고 장학실의 성낙준 장학관님 등이 집필자가 되었다. 미국 사람으로 당시 평화 봉사단 영어 교육 고문을 하시던 Bill Reich(현재 미국 응용 언어학 연구소 교수), Dan Holt(현재 캘리포니아 2중 언어 교육 장학관)을 모셨다. 이들은 한국의 영어 교육에 공헌하는 의미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기로 하고 흔쾌하게 요청

을 받아들였다. 작업을 돕기 위하여 당시 서울사대 4학년 학생이던 학생 하나를 조수로 썼는데, 현재 국민 대학교 영문과에 근무하는 강영세 교수이다.

이분들의 작업 속도는 놀라웠다. 들어온 다른 분들의 원고를 공동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등 끊임없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이 항상 평화스럽지는 않았다. 자신이 집필한 원고를 비판받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교수들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이 쓴 글도 비판, 수정, 보완의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원고 집필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여 주신 속도와 질은 놀라웠다. 교과서의 본문은 다른 곳에서 옮겨 오지 않고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모두 직접 썼는데, 특히 김우창 교수님의 고등 학교용 교재에 수록된 많은 글, 나건석 교수님의 중학교 교과서용 글은 찬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단일화 교과서는 일단 일정에 맞추어 발행, 공급되었다. 그러나 예정했던 대로 3차 교육 과정의 어휘, 문형으로 제한하여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다. 다만 중·고등 학교 교과서의 지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국 근대화, 충효 정신, 새마을 운동 사례 등이 정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수록되었고, 중학교 교과서는 Oral Approach 일색으로 편찬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내용의 수록은 편수관이 정기적으로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보여 주고 그 내용을 수정받았다. 담당 비서관은 영어 실력이 탁월하고 국제 감각이 있어 보이는 분이였다.

3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3차 교육 과정 개정과 교과서 단일화 작업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일,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곤란한 일로 기억된다. 3차 교육 과정에서 새로 수록된 필수 어휘와 문형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인데, 의사 소통 교수 방법을 권장하는 7차 교육 과정에도 살아 있는 것이 그 첫째 문제이다. 필자가 아무리 잘못된 유산이라고, 그 원흉이 필자 자신이라고 교육 과정 심의 위원회에서 말해도 다른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의사 소통 교육 과정에서 필수 어휘란 있을 수가 없고, 나선형 교육 과정을 주장하는 의사 소통 교육 과정에서도 문법사항은 제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육 과정의 목표 기술에서는 반드시 언어 능력만을 도달해야 할 목표로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언어 규칙의 교수-학습 활동을 섞어서 제시하는 것도 30년간 바뀌어지지 않는다.

교과서 단일화는 그 전체주의적 발상도 문제지만, 단기간 집필과 제작을 요구하는 전통은 재고되어야 한다. 4차 교육 과정 이후 검인정 제도가 다시 부활해서 예전과 같은 다양한 교과서가 편찬되고 사용되기에 이르렀지만 1년 정도의 집필 기간, 교과



---

교육을 평소엔 생각하지 않고 있던 필자들의 참여, 교과서에 사용된 영어의 진정성(authenticity) 문제, 교사용 지도서의 부실성 문제 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교과 교육 전문가들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이를 실험해 보고 일반 학교에 보급하며, 사용에 들어간 후에도 문제가 드러나면 계속 수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려면 국정, 단일본, 검인정 제도가 아닌 완전 자유 경쟁 체제 하에 교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과서 회사들이 수시로 좋은 책을 출판하여, 시청각 보조 자료는 물론 교사용 지도서와 자사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 교사들의 재훈련 프로그램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교과서의 편찬과 제작 판매는 한국 영어 교육의 발전과 직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성실한 필자의 책은 매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한 번 당첨되면 큰 돈 벌고, 떨어지면 손해 보고, 왜 합격되는지, 어떤 전문가가 10일 동안 심사해서 판정하는지 헤아리기 어려운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필자건 회사건 돈 벌려면 영어 교육에 공헌하도록 경쟁시키는 제도가 아쉽다.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sup>연</sup>

〈1969~1975 영어과 편수관〉

## 교과서의 신편·개편·수정 업무는 모두 어려운 일이었다.

- 수산·해운 교과서 중심 -

허 강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 I. 들어가는 말

제 3 차 교육 과정기인 1973년 2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실업 고등 학교 교육 과정은 두 차례 바뀌었다.

첫 번째는 1973년 2월 14일자(부령 제 310 호)로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과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의 특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현대화한 것으로서, 각 학문의 기본 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대담하게 정선하였고, 발견과 탐구에 의한 자율적인 학습의 과정을 강조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1976년 2월 23일자(부령 제 379 호)였는데, 이 때는 1973년 2월 제 3 차 개편 당시의 ‘교육 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은 그대로 승계한 채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보통 과목 및 전문 과목 등)만을 바꾸었다. 이 당시 수산·해운계 고등 학교의 교과편제상 교과목 수는 43 개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에서 교과서가 있는 것은 23 개이고 교과서가 없는 것은 20 개나 되었다.

그렇다면 교과서가 없는 것은 당연히 신편(新編)으로 새 교과서를 편찬해야 하고, 교과서가 있는 것 중 교육 과정이 개정된 것은 새 교과 과정에 준거해서 교과서를 개편(改編)해야 하며, 교과 과정상 지도 내용에 개정이 없는 것은 기존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교과서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이들을 수정(修正)·수정(修訂)해서 오류가 없는 교과서가 발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일은 모두 교과 담당 편수관의 몫이었다. 그리고 신편이나 개편이나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는 교과 과정의 목표, 지도 내용 등을 준거해야 함은 물론, 개정 교육 과정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힘써야 했다.

수산·해운계 고등 학교 교과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0여 종이 되고, 이들 모두를 신편, 개편 또는 수정 등으로 구분해서 특기할 만한 것을 소상히 밝히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신편·개편은 필수 과목 중 대표적인 것 중에서, 수정은 특정 교과서를 지칭하지 않고 수정 자료가 있는 것을 적시하여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기로 한다.

## II. 신편 ‘해양 훈련’ 교과서

새 교육 과정에 따라 새로 편찬되는 교과서는 ‘해양 훈련’ 교과서 외에 1~2 학년에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 전문 교과목 등으로서 ‘조선(造船) 일반’, ‘자원 어장’, ‘재화법’(載貨法), ‘해사 법규’, ‘어병’(魚病), ‘식품 가공 기계’, ‘통신 일반’ 등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동안(제 2 차 교육 과정기)에 왜 ‘해양 훈련’ 교과서를 편찬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전임자인 임병기 편수관한테 물어 보았으나 별로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수산·해운계 고등 학교의 모든 학과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가 ‘해양 훈련’인 것을 왜 편찬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우선해서 교육 과정 적용 초년도에 ‘해양 훈련’을 신편으로 편찬하기 위해 이 과목을 선정하였고 저작자를 물색하였다. 다행히 집필자는 부산 수산 대학 조권욱 교수와 현직 수고 교사 두 명으로 정했다.

그리고 원고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편찬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집필자와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 집필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기억된다.

첫째, 각종 수영법 중 원영(long-distance swim)을 위주로 비중을 높여야 한다.

둘째, 조정에서 단정짓기는 비현실적이므로 소개하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

셋째, 줄매기(marline spike seamanship)는 현장 용어를 쓰도록 한다.

넷째, 신호법(signals)은 승선(乘船) 학과에서 승무나 항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의 개념만 안내해야 한다.

새로 마련된 ‘해양 훈련’ 교과 과정의 ‘지도 목표’, ‘지도 내용’ 및 ‘지도상의 유의점’에 따르면 집필자들이 주장하는 게 모순으로 지적되고, 저작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 교과 과정 정신에 위배되므로, 우선해서 국가 수준의 교과 과정에 준거해서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문교부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당시 우리 나라의 수산 고등 학교에는 단정 시설이 거의 없었으며, 줄매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정하지 않았고, 신호법은 승선 학과에서 학습 대상으로 다루고 있었다. 물론, 수산·해운계 고등 학교 학생들이라면 각과 공통으로 이수하되, 학과에 따라, 즉 비승선 학과인 경우 내용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원래 ‘해양 훈련’ 교과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첫째, 수영, 조로, 조정, 신호 등 해상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숙달하게 하며, 둘째 바다의 일꾼으로서의 정신적·신체적인 기백을 길러 장차 바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협동 정신과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며, 유사시에는 인명 및 선박 구조에 임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 후 탈고된 원고지를 검토하면서, 집필자 중 조권욱 교수님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또 현직 교사의 상황 판단이 정확하였다는 점에 대해, 그리고 교과서의 기능 중 진실성과 객관성 등을 잘 표현하고 준수한 점에 대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물론, 원고를 정리하면서 부닥친 서술상의 애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교과서를 새롭게 편찬하는 게, 즉 학습 내용을 창작해서 좋은 교과

서로 탄생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몸소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 ‘해양 훈련’ 교과서가 제 6 차 교육 과정 개정(1992. 10. 30) 때 필수 과목에서 삭제되고 선택 과목에서도 빠졌다. 이 과목이 없어진 이유는 각종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어 옛날처럼 해난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수산·해운계 고등 학교 주변 해역이 오염되어 해양 훈련을 하는 곳이 마땅치 않으며, 항해·기관·통신 등 승선 학과 이외에는 구태여 해양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제 6 차 교육 과정 개편 심의회 때 ‘해양 훈련’ 과목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극구 주장했으나 심의 위원 중 현장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뜻을 살리지 못한 기억이 난다.

나는 가끔 ‘해양 훈련’이 없는 수산 학교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해양 훈련’이 없는 수산 학교에서는 바다 정신이 빠진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젖을 때가 있다. 또, 제 3 차 교육 과정에 따라 신편으로 꾸밀 때 첫 페이지에 써 넣은 ‘해양 훈련의 필요성과 목적’을 읽으며 그 당시를 회상하기도 한다.

### Ⅲ. 개편 ‘수산 일반’ 교과서

개편이란 교육 과정의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총 쪽수의 3분의 1을 넘는 내용의 변경을 말한다. 제 3 차 교육 과정기에 개편된 교과서는 위와 같은 개념에 속하는 교과목의 교과서를 그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숫자는 ‘수산 일반’을 비롯해서 10 여 종에 달했다. 여기서 ‘수산 일반’ 교과서가 왜 개편 요건에 포함되었는지 그 구체적 사항을 밝혀 보기로 한다.

‘수산 일반’ 교과목은 수산업 전반에 걸친 개요를 이해시키려는 데 있으며, 따라서 수산 고등 학교에서는 제 1 학년에서 이수시키고, 상급 학년에서 전공하는 과목과 중복되는 지도 내용은 빼고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이 과목은 각과 공통 필수 교과목이므로 매우 중요하고, 또 지도 내용 중 한 영역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개편 요건이 되었던 것이다.

즉, ‘수산 일반’의 지도 내용으로 ‘해사 일반’을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개념상 ‘바다에 관한 일’이고, 또 수산·해운에 관한 학습 범위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과정상 지도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했다. 그 당시 교과 과정상에 제시된 ‘해사 일반’의 단원 구성은 그냥 ‘해사 일반’이었다. 다른 큰 단원(가령, 어업, 양식, 가공, 경영 등)과 동일 수준에 있었으며, 다른 큰 단원은 중단원명까지 제시되었으나 ‘해사 일반’은 대단원명뿐이었다.

여기서 ‘해사 일반’ 단원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설명하기로 한다. 즉, 내가 수산 대학을 나와 수산 고등 학교에서, 또 수산 전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가끔 부탁치는 게 ‘해사에 관한 일’, ‘바다에 관한 일’, ‘배에 관한 일’ 등이었다. 다시 좁혀 이야기하면, “저 배는 무슨(종류) 배지?”, “몇 톤이나 되는 거야?”, “무엇을 싣고 가는 배지?”, “브리지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생겼지?” 등에 대

해 궁금증이 있었고, 어떤 이는 내가 수산 학교 교사(교수)라고 해서 그런지 ‘수산 해양에 관한 일’, ‘바다와 배에 관한 일’ 등 일련의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 때마다 나는 모른다고 했을 때는 무식자가 되고, 대답한 때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해사 일반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 할까, 해사에 기본 되는 지식을 고등 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수시키는 게 올바른 학습 내용의 수용인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해사 일반’에 대한 것을 교과 과정에 도입해서 학습 내용으로 교수·학습해 보자는 심리 작용이 발동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심리 작용은 내 개인의 생각이고 희망사항이었다. 그 뒤 ‘수산 일반’ 교과 과정 심의회에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뜻밖에도 이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는 원양 항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호황기였으며, 선박 운항에 대해 젊은이들의 해양 진출 의욕이 왕성하였고, 사회적으로도 해양 사상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어 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관계하던 심의 위원들은 ‘해사일반’의 단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의기 투합된 분위기 속에서 통과시켰던 기억이 난다.

그 뒤 제 3차 교육 과정 개정에 따라 1973년도에 ‘수산 일반’ 교과서가 개편되었는데, ‘해사 일반’의 집필은 이 분야에 권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지금의 기억으로는 부산 대학교 조선과 하동대 교수, 한국 해양 대학 김용성 교수, 한국 선급 협회 김철준 기사장 등 3명으로 생각된다.

교과 과정상의 ‘해사 일반’ 단원은 ① 선박의 종류 ② 선박의 규칙과 용어 및 선체의 구조 ③ 선내 제 설비 ④ 선박의 일생 ⑤ 조선소와 항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내 제 설비’에는 브리지, 조타 장치, 계선 설비 등의 소단원이 포함되었다.

그 당시 개편된 교과서는 해를 거듭하면서, 또 교육 과정이 네 차례나 개정되면서 이 교과서는 몇 차례 개편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따라서, 그 당시의 ‘수산 일반’ 교과서는 고본(古本)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다만 교과 과정상 교과 목표나 지도 내용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해사 일반’의 뿌리는 제 4차 때는 ‘선박 개요’로 바뀌고, 제 5차 때는 ‘선박과 운항’으로, 제 6차 때는 ‘어선과 그 운항’으로 축소되었으며, 제 7차 때는 ‘선박 운용’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해사 일반’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면서 지구 아닌 수구(水球, 지구 전체의 약 70%가 수역이므로 수구 개념도 된다)에 바다가 존재하고 수산·해운업이 발전하며 더욱이 이들 산업이 해양 산업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가는 한 ‘수산 일반’ 교과에서 ‘바다와 배’의 단원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 Ⅳ. 수정되는 교과서들

교과서의 수정(修正)은 수정(修訂)의 개념까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두 용어가 ‘잘

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교과서의 수정 내용은 초판본의 오류뿐만 아니라 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정 자료가 있는 것 중에서 골라낸 것들이다. 그리고 다음 수정 내용에는 표기에 관한 것, 즉 ‘외래어의 한글 표기’, ‘한글의 로마자 표기’는 당시 사용한 표기 원칙에 따른 것이었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① 해양 훈련 : 해녀(海女)를 잠수(潛搜)로 고쳤다. 이것은 제주도 교육 위원회에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 용어는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를 비롯해서 ‘해녀’로 표기된 다른 교과서도 ‘잠수’로 바꿨다.
- ② 수산 일반 : 학꽁치는 ‘학공치’로, 자릿그물은 ( ) 안에 ‘정치망’을 넣었으며, 해양대지는 ‘대양저’로 전 교과서에 통일되게 사용하였으며, 가다랭이 낚시 어업을 ‘가다랭이 낚기 어업’으로, 고동류를 ‘고동류’로, 코울드체인 시스템을 ‘저온유통 체제’로 바꾸었다. 또, 세섬형선(three islander)을 ‘삼류형선’으로, 선박 용어에 있어 키일(keel)은 ‘용골’로, 프레임(frame)은 ‘늑골’로 고쳤으며, 선교는 브리지로 환원하였고, 수산 가공 영역에서 사용한 신선도는 ‘선도’로 모든 교과서에서 통일되게 사용하였으며, 시이밍관은 ‘밀봉관’으로 바꾸었고, 박용 기관은 ‘선박 기관’으로 왜색 용어를 탈피하였다.
- ③ 수산 가공(1) : 식료품이나 식물(食物)은 ‘식품’으로, 맥아당은 ‘엿당’으로, 통조림 식관에 통째우기는 ‘충전’으로, 염신품은 ‘젓갈류’ 또는 ‘젓갈’로 수정하였으며, 수산기(水酸基)는 ‘히드록시기’로, 이성체는 ‘이성체질’로 수정·통일하였다.
- ⑤ 선박 전기 : 전장은 ‘전기장’으로, 자장은 ‘자기장’으로 용어 수정이 있었으며, 이 용어들은 모두 합치면 100여 개가 넘었다.

수정은 해마다 계속되는 것으로서 특히 시사적인 내용은 해마다 현실성 있게 수정하였는데 비교적 많은 신경을 써야만 했다. 그리고 수정 작업은 그 교과서가 신편되거나 또는 개편되어 없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 V. 맺는 말

이상의 신편·개편·수정 내용은 내가 문교부에 편수관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 중 극히 일부분의 것을 제시한 데 불과하다. 달리 이야기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은 가치로운 것이고, 또 이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한 애정과 창의성 개발,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sup>92)</sup>

〈1969~1977 수산·해운 편수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

## —연구 개발형 교과용 도서 편찬—

조 난 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연구본부장

### 1. 연구 개발형 교과용 도서 편찬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이 중반에 접어들었다. 금년 초에 초등 학교 1~2학년 도서는 이미 적용을 시작하였고, 초·중·고교 각 학교급의 교과용 도서도 개발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새 교과용 도서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변화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초등 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중·고등 학교 교과서에도 컬러를 도입하고, 편집 및 레이아웃 개념을 도입하여 지면을 구성하는 등 교과서의 외적 체제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1종, 2종 교과용 도서 모두 학교 현장 교사의 연구 집필 참여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점차 교사들의 교과서 연구·개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1종 도서 및 2종 검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른바 ‘자유 발행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

과용 도서 연구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개발형 교과용 도서 편찬’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교과서·교육평가 관련 연구 개발을 주임무로 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1999년 5월부터 1종 도서 연구 개발 업무를 일괄 위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1998년도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종 검정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점은 종래의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를 개선시킨 큰 변화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교과용 도서 편수 제도를 개관해 보면, 초창기의 문교부 편수실에서 직접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던 틀에서 벗어나, 점차 민간이 개발하는 2종 도서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등 외부의 연구 개발 기관에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왔다. 기초 연구가 없이 행정의 절차로서 ‘개발’만 이루어져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고한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 체제가 정립되지 못하고, 교육 과정 개정에 따라 새 교과용 도서 개발이 요구되면

그 때마다 교육부 담당관들이 적절한 연구팀을 선정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위탁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었다. 이는 곧 전담 기관이 교과용 도서의 연구 개발을 체계적으로 담당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그런데 1999년 5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종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일괄 위임받게 되었고, 또 2000년 1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에 교과서 연구본부를 별도로 신설한 것 등은 이러한 연구 개발 체제 확립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용 도서 개발 여건은 열악하며, 종래에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상존(尙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연구본부에서 추진 중인 1종 도서 연구 개발 업무와 2종 도서 검정 관리 업무를 살펴보면서 장차 연구 개발형 교과용 도서 편찬 체제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2. 1종 교과용 도서의 연구 개발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1종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은 1998년에 시작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8년도에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1~2학년 국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4개 교과 44책)과 3~4학년 국어, 도덕, 과학, 체육, 미술, 영어(6개 교과의 50책)의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9년도부터는 초등 학교 5~6학년 국어, 도덕, 과학, 실과, 체육, 미술, 영어(7개 교과 46책)와 중학교 재량 활동 선택 과목인 생활외국어(7개 교과-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14책)와

외국어 계열 고등 학교의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8개 교과 40책)의 교과용 도서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뿐만 아니라, 오디오 테이프, CD 타이틀 등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교과 교육의 방향을 교과용 도서에서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연구·개발되고 있다.

첫째, 교과용 도서에 교육 과정의 정신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 교육 내용을 적정화, 구조화하고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에 따른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교과서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우리 교과서가 모든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배운다는 교과서 활용의 관행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이끌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교수·학습 활동이 교과서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하고 있다.

둘째, 사용이 편리하고 아름다우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교과서의 외적 체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서는, 예산상의 제약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사용이 편리하고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풍부한 자료들을 접하며 자라나는 신세대 학생들의 취향에 부합되는 자료로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1종 도서인

경우에는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이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므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과서 편찬의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 연구 개발 과정에 가능한 한 현장 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여 교사 친화적인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과 교육 연구자들이 연구 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또 상당수의 연구원들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부터 제7차 교과 교육 과정 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종 도서의 연구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2000년부터 교과서 연구본부를 별도로 독립시켜 운영함으로써 좀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셈이다. 그러나 1종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논의와 검토 및 개선을 요한다.

첫째, 1종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비가 부족하다. 제7차 교육 과정기에 교육부의 노력에 의해 교과용 도서 개발비가 상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종 도서 개발비는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개발을 담당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1종 도서의 특성상 관계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회의 수당 등이 부족하며, 삽화비와 사진료 등의 비용은 시중의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서 질 높은 작품을 제작하기가 어렵다. 사실, 효용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해당 학년 전체가 배우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들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도서들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1종 도서 연구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 1종 도서 개발 전담 인력이 없는 대학의 1종 도서 개발 위원회의 경우는 물론이고, 현재 1종 도서 개발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에도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 이는 우선, 그러한 인력을 갖추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과용 도서 개발 기간 동안 해당 학교급의 교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여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과용 도서 연구 실험 학교와 연구 개발 기관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다. 현재 1종 도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경우에, 연구 실험 학교에의 적용을 거쳐 정본이 개발된다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과용 도서 연구 실험 학교의 실제 운영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직접 관할하여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기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의 연구 실험은 ‘실험본 교과용 도서에 대한 미시적인 수정·보완 의견 제시’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자들도 실험학교에 깊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실험을 통해 교과용 도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 연구 실험 학교의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좀더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장차 2종 화를 대비하여 2종 교과용 도서의 연구 실험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리하는  
2종 도서 검정 체제에 의한 검정이 현재 실시되고 있고, 이는 2002년에 가서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 체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다**

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 교과용 도서가 존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정책 방향에 따르면, 다음 주기의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 교과용 도서도 점차 2종화 하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1종 도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개발 방향의 문제는 바로 이 정책의 실현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학생 대다수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국민 공통기본 교과들의 교과용 도서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1종 도서로 남을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2종 도서화 혹은 자유 발행제를 도입한다 하여도 채산성 문제로 일부 특수 학교나 전문 과목의 교과용 도서는 여전히 1종 도서로 개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러한 교과용 도서의 위상이나 수량이 미미하여 1종 도서 전반의 정책 결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부의 예정대로 다음 주기부터 대부분의 교과용 도서를 2종화한다면, 1종 도서 연구 개발 체제는 제7차 교육 과정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며, 그런 만큼 장기적인 개발 체제보다는 이미 개발된 도서에 대한 중단기적인 질 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 2종 교과용 도서의 검정 관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의해 1998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관리 업무를 위탁받게 되었다. 그 동안 교육부의 편수 행정 절차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를 전문 연구 개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2종 교과용 도서 질 개선을 위한 한 단계 진전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998년부터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0년에 들어와 중학교 1학년 검정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교과용 도서 검정 관련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종 도서 검정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주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과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조난심 외, 1999. 5).

이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 과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달라진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중학교 교과용 도서의 단계별 연차적 검정

의 도입,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주관으로 검정 실시—하에서 어떻게 하면, 질 높은 교과용 도서가 검정에서 합격되고 채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체제의 문제를 다루었다.

교과용 도서 검정의 의의와 배경, 외국의 교과용 도서 제도, 현행 교과용 도서 검정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등을 토대로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 개선안과 검정 실시 과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검정 실시 과정 개선안과 검정 실시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검정 관리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 안에서는 특히, 기초 심사와 본 심사의 분리 및 심사의 충실화, 엄정화를 통한 질 높은 도서의 엄선을 추구하였다.

둘째, 1999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에 관련 전공자들을 포함시킨 검정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정 관리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안)」(1999. 5)을 연구·개발하였다. 교과용 도서 검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검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단순히 행정적인 관리 차원을 넘어 검정 심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정 기준 안을 연구 개발한 것이다. 이 안에서는 교과용 도서 질 관리를 위한 엄격한 기준 제시를 표방하고, 교수·학습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외적 체제 기준과 교사용 지도서 기준을 신설 제시하였다.

특히, 교과용 도서를 통합적으로 감식할 수 있는 ‘독창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이 새 교과용 도서에서 도입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기준 안은 교육

부에 제안되어 검정 기준(교육부,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도서 검정 기준」, 1999. 8) 설정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셋째,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2종 도서 검정 심사에는 합격 종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절대 평가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자격을 갖춘 도서는 합격시킨다는 취지를 반영한 제도이다. 그런데 절대 평가제 도입으로 인한 교과용 도서의 난립과 그에 따른 책값의 상승, 질 관리의 난맥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정을 통과한 2종 도서의 적정 합격 종수 유지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한국교과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2종 교과용 도서 과목별 적정 합격 종수 연구」를 수행하였다(조난심 외, 1999. 12).

이 연구에서는 적정 합격 종수 설정의 필요성 검토, 적정 합격 종수 관련 실태 및 요구 분석, 제6차 교육 과정에서 교과별 교과서의 유형과 사용 실태 분석 및 외국의 교과서 종수 고찰을 바탕으로 과목별 적정 합격 종수 추정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과목별 특성, 교수·학습 형태의 다양성, 학습 분량, 교사들의 요구 조사, 외국의 사례, 경제적 채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산해 보면,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3~5종, 5~8종, 5~10종 정도가 적정 합격 종수 나타났다. 곧 우리 나라의 시장 규모나 교과목의 교수·학습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최대한 10종 정도가 적정 종수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검정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다.

#### 나. 2종 도서 검정의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부의 검정 실시 공고(1998. 12. 31) 및 이상과 같은 관련

연구를 토대로 검정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초·중반에 걸쳐 중학교 1학년 도서 검정이 실시되고, 연말부터는 중학교 2학년 도서와 고등 학교 공통 과목 도서들에 대한 검정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9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중학교 1학년 교과서 1차 심사는 단계별 검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실시되었다. 우선, 전국 각지에서 추천을 받은 연구위원들—중등 학교 교사 및 대학 교수, 원어민, 국어 표현 표기 전문가 등—이 심사본 교과서를 살살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기초 조사에서는 교육 과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은 적절한지 등을 교과목에 따라 적절한 분석 틀을 구안하여 철저히 조사하였다. 그리고 삽화, 사진, 지면 구성, 편집 체제 등과 같은 교과서의 외적 체제를 평가하는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교과서를 평가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외적인 체제 면에서도 질 높은 도서가 합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표현 표기 조사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사본 교과서의 오류, 오식, 부적절한 표현 등을 가려 내었다. 또 영어와 한문과의 경우에는 사용된 어휘의 수와 수준이 적절한지를 검사하였다. 이러한 기초 조사의 과정을 통해 각 책별로 기초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어 본 심사를 하는 교과별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기초 조사의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교과서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이루어진 본 심사에서는 교육부 장

관의 위촉을 받은 각 교과서의 검정 위원들이 교육 과정과 검정 기준 및 기초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심사본 교과서의 적부를 판단하였다.

심사의 과정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합숙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결정은 교과별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312종의 심사본 가운데에서 105종이 1차 적격본으로 선정되어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바 있다. 중학교 1학년 도서의 경우에는 4월의 2차 심사, 7~8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사용 지도서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월 중에 합격본 발표가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리하는 2종 도서 검정 체제에 의한 검정이 현재 실시되고 있고, 이는 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2종 도서 검정이 완료되는 2002년에 가서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 체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종 검정을 실시하면서, 그 체제와 절차 등에 대한 각종 결정 과정과 문서들 그리고 각 교과별 교과용 도서의 구성과 관련된 자료들 자체가 우리 나라의 교과용 도서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보고, 그에 대한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를 작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장차 확대될 교과용 도서 2종 검정 체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4



## 교과서가 재미없는 이유

김 주 환

서울 장위중학교 교사

학

생들에게 교과서는 고통이다. 이는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내가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참 힘들었던 것이 교재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재미없고 구태의연한 내용 일색이라 교과서를 들여다보기가 싫었다. 교사가 이러니 아이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아이들은 시험을 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과서를 본다. 시험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나마 어쩔 수 없이 교과서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아이들에 비해 현재의 아이들은 재미없고 무의미한 교과서에 저항한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사의 엄숙주의를 거부한다. 아이들은 변했는데, 교사와 교과서는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교육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변화하지 않는 교육제도와 교과서와 교사,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변하는 아이들 탓이 아니다.

교육 과정은 교과서가 하나의 자료일 뿐이니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른바 교과서의 성전 개념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현실이 어디 그런가?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교재이며 교수·학습 자료다. 교과용 도서 규정 51조는 ‘교과서 외 도서 사용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은

교과서의 교육 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서가 재미없고 쳐다보기 싫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 왜 교과서는 이렇게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외면당하는가?

교과서가 재미없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재미없기 때문이다. 물론 책의 지질이 낡다거나 칼라도 아닌 흑백이고 편집이 구태의연하며,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한 점도 흥미를 끌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 요건 때문에 교과서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지질이 안 좋아도 무협지나 소설책등을 아이들은 재미있어 한다.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매우 구태의연하고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가 지겨운 것이다.

우리 교과서는 외국의 교과서에 비교해 볼 때, 분량면에서 훨씬 적다. 하지만 외국의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훨씬 어렵다. 이처럼 내용이 어려운 까닭은 외국의 교과서는 하나의 개념을 습득하기 위해 몇 쪽에 걸친 관련 자료와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 교과서는 한두 문장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얼마전 우리 반 아이들의 사회 성적이 평균 30~40점대로 매우 형편 없어서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아이들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나 토론 과제를 제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거의 정치 경제, 사회학 등의 개론서를 짜깁기해 놓았다. 나도 골치가 아픈 생소한 개념이 한두 문장에 한 개씩은 나오니 선생님들도 요령 부득이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사회 교과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국어 교육의 내용은 국어학과 문학의 내용을 짜깁기해 놓은 것이다. 대학의 개론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수준을 낮춰서 제공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구성 방식이 문제다. 우리 나라 교과서는 매우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이것을 연습해 보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는 방식이다. 명제는 주어져 있고, 이것을 풀이하는 것만이 활동의 전부다. 중요한 것은 이 명제를 인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지극히 간단히 처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의 운율에 대해 학습한다고 하자. 우리 교과서에는 ‘시의 운율은 이러저러한 것’이라고 한두 단락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몇 편의 시를 제시하고 ‘운율을 찾아 보자.’ 라고 하는 식이다. 물론 실제 수업에는 운율만 찾아보는 것도 아니다. 시와 관련된 모든 학습을 다 한다. 사실 분명하게 말해서 시의 운율이 학습 요소라 할 때 아이들이 시의 운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학습 목표는 달성된다. 따라서, 학습의 모든 과정은 시의 운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에서 운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운율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는 지식 정보 사회라고 한다. 굳이 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교육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 ‘지식’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컴퓨터와 각종 매체의 발달은 지식을 대중화시켰으며 지식 자체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의 활용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여전히 과거의 ‘지식’ 전달 중심으로 편성되어서 학생들이 지식을 활용하거나 지식을 발견해 나가는 창의적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수 분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어떻게 잘 풀 것인지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가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인수 분해 공식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왜 인수 분해라는 공식이 발견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유용한 진리가 되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학적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학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새로운 지식 사회의 지식교육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창의력 교육’, ‘사고능력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아직도 새로운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가 재미없는 본질적인 이유는 교과내용이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실과 유리된 지식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국어 교과서를 보자. 국어 교과서에 재미있는 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이 없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일제 시대나 60~70년대 작가의 글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아이들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지금 여기의 문제를 표현하고 지금 우리의 말을 사용할 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평가가 끝난 글을 아이들에게 제시했을 때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는가?

영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영어 교과서는 물론 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어라는 것은 영국의 어린이가 배우는 영어가 아니다. 우리 나라 학생들, 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영어이다. 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언어는 문화적 기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의 문화가 드러나 있어야 하고 우리와 다른 영어권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영어 교과서에는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 않고, 그저 언어 학습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수년 동안 영어를 배워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이제는 초등 학교 때부터 배운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고 해서 영어가 늘지는 않는다. 영어권 나라의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고 우리와 다른 영어적 사고를 이해해 나갈 때 영어는 좀더 친숙해지고 우리의 삶과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 교과서에는 오늘의 사회적 갈등이나 고민이 없고 역사 교과서에는 근대 이전의 왕조사만이 나열되어 우리 민족의 삶이나 생활의 고민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와 역사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안목을 쌓아 갈 수 있겠는가? 모든 지식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럴 수 있을 때 의미있는 것이다. 오늘의 문제 의식이 없는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교과서는 이처럼 현실과 유리되고 어려워지며 불친절한 채로 변화하지 않는가? 현재 일곱 번째로 교육 과정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이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만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교과서가 변화하지 않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교과서 제도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의 취약한 학문적 토양 탓이다. 우리 나라에는 1종과 2종 교과서 제도가 있다.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 제도가 그것이다.

초등 학교 교과서의 전부와 중등 학교 국어, 역사, 도덕이 국정 교과서로 묶여 있고, 중등의 나머지 교과가 검정 교과서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중으로 볼 때, 국정 교과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제작·공급하는 하나의 교과서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국정 교과서의 한계로 작용한다. 국가가 제작하는 하나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고, 각종 이권 집단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은 실리기 어렵게 된다. 쉽게 말해서 학습의 목표를 실현하고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내용을 반영하기보다는 문제 없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지난 6차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바비도’라는 작품이 천주교 쪽의 문제 제기로 교과서에 실린 다음에 다시 빠진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바비도’라는 작품은 중세 종교적 사건을 다룬 소설이지만 개인과 권력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다. 종교 문제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추기경까지 나서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시비를 걸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없다. 결국 교과서에 다루는 내용은 현실성도 없어지고 창의성도 없는 그런 내용만 남게 되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가 갖고 있는 이런 제약을 극복

하고 다양한 교과서 실험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검정 교과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의 검정 교과서 제도는 절름발이다. 검정보다는 국정 of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 편이 타당하다. 이것은 검정 교과서로 나온 10~20종의 교과서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대동 소이하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제작만 민간 출판사로 넘어왔지, 내용이나 형식을 모두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출판사나 필자의 자율성은 엄격히 제약된다. 7차 교육 과정에 와서 검정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제약과 한계는 여전하다. 더구나 교과서 가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출판사에서는 좋은 교과서를 개발해서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교과서는 적당히 만들고 참고서를 판매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시장의 왜곡성이 심화되고 있다.

학문은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될 때 발전한다. 교과서를 정부의 획일적 통제 대상으로 보게 되면 교과서의 변화와 발전은 어렵게 된다. 교과서를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성과 전문성이 집적된 학문적 지성의 장으로 인식할 때 지식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 세계의 선진국들을 살펴볼 때, 우리 나라처럼 교과서에 대한 규제가 심한 나라가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출판사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출판하고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맡겨져 있다.

교과서가 변화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고 교과서에 대한 연구 투자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교과서는 하나의 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라는 것은 개론서보다도 못한, 수준이 낮은 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대학의 개론서 내용을 압축

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 교과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질 높은 교과서가 나올 리 만무하다. 물론 교과서에는 학문적 성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문적 성과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새로운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학문적 발상법과 사고 방식, 연구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학문하는 태도는 전문가나 어린 아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창의력 교육이다. 국어학과 문학의 연구 내용과 아이들이 국어 능력을 어떻게 키워가는데 대한 연구는 명백히 다르다. 과학 이론과 아이들의 과학적 사고 능력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판이하다.

교과서를 개론서보다 수준 낮은 텍스트가 아니라, 지식의 새로운 대중적, 교육적 실천의 대상으로 설정할 때, 교과서는 높은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과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실천이 축적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지적 발달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전제되어야만이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

교과서는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온통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교사는 학교 관리 체계의 포로가 되어 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거세된 교육 체제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들이 생산되기를 바라는가? 교과서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교과서를 통제의 대상에서 논의의 대상, 탐구의 대상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교과서는 변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교과서 없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은 교과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하기 때문이다. <sup>2)</sup>

# 교과용 도서 정가 결정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 〈연구 보고서 '98-2〉

교과용도서는 교과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발행자와 생산 과목이 지정되어 있고, 정부가 가격 결정 방법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가격 결정 체제는 시장 경제를 배척하면서 인쇄 시장을 왜곡시키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고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따라서 현행 국정과 검정 교과서의 가격 사정의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여 가격 결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 구성과 산출 과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 교과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

이 연구는 교과용 도서 가격 결정 제도의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 ① 새로운 정가 결정 제도의 기본틀로서 교과서 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과목별 표준가격에 의한 예정 정가를 발표함으로써 각 발행사들이 자사의 교과서 개발 능력과 판매 예상에 따른 채산성을 검토하여 교과서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사전 투자 가이드 제도이다.
- ② 표준 가격의 원각성 항목을 제시하고 교과용 도서의 발행·공과정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구체화시킴으로써 투입 비용이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한다.
- ③ 정가 사정 업무의 전문가와 전문기관 검정제 도입으로 예정 정가 결정의 전 단계인 표준가격의 조사와 분석 업무를 전문가에 의뢰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순환 보직 등에 따른 비전문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게 한다. 즉,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 정가 사정 실무팀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법인 형태의 원가 계산 용역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④ 교과용 도서 가격 심의 조정 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서 이해 관계가 있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는 정가 결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한다.

○ … 이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태웅(연구 책임자), 김오수, 유윤산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특수 학교 교과용 도서 체제·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 보고서 '98-5〉

개정된 특수 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특수 학교 교과용 도서 개발의 체제와 구조를 제시하기 위하여 특수 학교 교과용 도서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과 개발 방향과 그 구성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특수 학교 교과용 도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으로 첫째, 기본 교육 과정에서는 현행 교과서가 학생들이 다루기가 불편하고 내용 단위가 너무 커서 활동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과 교사용 지도서가 교수·학습을 위한 활동의 구체성과 상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 일반 학교의 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장애 영역별로 필요한 특성 과목에 대해서만 보조 교과서를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각 장애 학교는 점자 익히기 교재, 청각 장애학교는 언어 지도에 관한 교재, 지체부자유 학교는 체육에 관한 보조 교과서를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방향과 구조에서는 첫째,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부응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있도록 전자화된 교과용 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개발할 것이다. 셋째, 수업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중시 평가 체제가 반영될 수 있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의 개발 체제와 구성면에서는 첫째, 활동 중심의 단원 및 주제를 선정하여 통합 교육을 용이하게 하며 단원 구성을 특정한 소재나 장면 중심으로 여러 가지 코너를 마련하는 편집 체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구성 방식을 제시한다. 둘째, 시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국어와 영어과목에 대한 보조 교과서로서 점자 익히기, 언어 지도 등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셋째, 치료 교육 활동의 교과용 도서는 학생에게는 학습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되고 교사에게는 수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자료 또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식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넷째, 직업 교과는 직종별로 필요한 직무를 분석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직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 이 연구는 대구대학교 교수 김병하(연구 책임자), 김정권, 김현선, 윤광보, 김용욱, 오세웅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중학교 1학년 2종 도서 재검정 추진 일정

자료 제공: 교 육 부

업 무 명	일 정 (2000년)	담당 기관
재검정 예정자 등록	8월 18일(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검정 교과서 1차 심사본 접수	9월 21일(목) ~ 22일(금)	"
교과서 1차 심사 결과 발표	10월 12일(목)	"
교과서 2차, 지도서 1차 심사본 접수	11월 1일(수) ~ 2일(목)	"
교과서 2차, 지도서 1차 심사 결과 발표	11월 18일(토)	"
교과서 재수정본, 지도서 2차 심사본 접수	11월 25일(토)	"
최종 합격자 발표(공고)	12월 1일(금)	교 육 부

※ 재검정 합격 도서의 2학년 검정 일정은 기 공고(1998. 12. 31)한 일정과 동일함.



# NEWS

## 연구원 소식

### ※ 김효수 원장 취임

우리 연구원은 제2대 신진기 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김효수 전 학술원 사무국장이 제3대 원장으로 2000년 1월 1일 취임하였다.

### ※ 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원 이사회는 '99년 12월 14일 1999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99년도 출연금 기본 재산 편입
- 연구원 정관 중 개정
- 2000 회계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 교과용 도서의 수집 계획 (보고)

○...우리 연구원 이사회는 '99년 12월 30일 1999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이사겸 원장(신진기) 해임
- 이사겸 원장(김효수) 선임
- 기금 출연 계획 변경

○...우리 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2000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99회계년도 결산 승인
- 2000년도 기금 출연 금액 확정외 2건 (보고)

### ※ 시·도 인정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원은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인정 교과서)를 수집한다. 이번 수집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바 있는데 전국의 인정 교과서를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적

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수집에 협조해 주신 시·도 교육청에 감사를 표한다.

### ※ 외국의 교과용 도서 구입

우리 연구원은 교과서의 국제 비교 연구와 교과서 개발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외국의 교과용 도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5개국의 초등 학교용 교과용 도서를 현지 제외 한국 학교를 통해 구입하기로 하였다.

### ※ 발행사 2000학년도 교과용 도서 기증

우리 연구원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0학년도 교과용 도서를 발행사로부터 기증받아 교과서정보관에 비치, 일반인에게 열람 제공하고 있다. 기증에 협조하여 주신 대한교과서(주), 한국2종교과서협회에 감사드린다.

### ※ 2000년도 출연금 납입

우리 연구원은 교과서 발행사로부터 2000년도 출연금을 출연받아 기본 재산에 편입 조치하기로 하였는데, 대한교과서가 312,240,000원, 2종교과서협회가 287,760,000원으로 총 6억 원이다. 그 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 ※ 연구 사업 추진

우리 연구원은 2000년도 조사 연구 사업으로 교육부의 정책 연구 과제와 자체 연구 과제를 확정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연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비의 70%를 지급하였다. 23

## 교과서

# 개별 구입 안내

### ✳ 교과서 상설 판매장(공통)

- 장소: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 2동 1361-2(지하)
- 전화: (02) 3472-5487  
813-8876

### ✳ 한국2종교과서협회(초등 영어 및 중·고등학교용 2종 교과서)

- 장소: 서울 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1
- 전화: (02) 3663-4292~3
- 자동 응답 안내 전화: (02) 3663-5409~12,  
3663-9120~2

※ 초등 학교 3, 4, 5학년 영어 비디오 테이프 구입 가능

### ✳ 대한교과서주식회사(초·중·고 1종 교과서)

- 장소: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344-12
- 자동 응답 안내 전화: (0342) 735-8105,  
(0415) 861-3183

### ✳ 향우산업주식회사(고등학교용 교련 교과서)

- 장소: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13
- 전화: (02) 790-5947

※ 기타 지역별 개별 판매 서점 및 구입 신청 방법은 각 발행사에 문의 바랍니다.

## 교과서 전문 연구지

# 『교과서연구』

###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

교육 제도· 교육 과정· 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 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보내실 곳 : 135-08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원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kotri@hanmail.net

# 한국교과서연구원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10,055	3,573	13,628
일반 자료	970	—	970
계	11,025	3,573	14,598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집트  
등의 교과용 도서 보유

### 열람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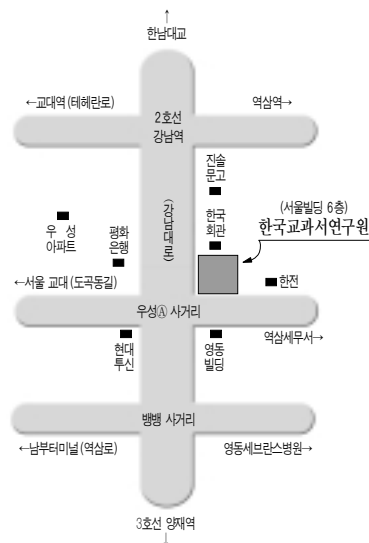
구 분	기 간	시 간
평 일	3~10월	10:00~17:00
	11~2월	10:00~16:00
토요일	1~12월	10:00~12:00

\*공휴일 휴관

### 교통편

- \*전 철 ▶ 강남역(2호선) 2번 출구로 나와 진솔문고, LG 주유소를 지나 한국회관 다음 건물임.
- \*일반 버스 ▶ 17, 66, 68, 78-1, 78-3, 83-1, 97-2, 239-1, 414 역삼동 하차, 33-1, 289-1 우성쇼핑센터 하차
- \*좌석 버스 ▶ 45, 45-2, 46, 736-1, 910, 916, 1005, 1005-1, 1005-3 역삼동 하차

### ● 찾아오는 길 ●



알) 립) 니) 다)

##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원은 추억과 향수가 깃든 고(古) 교과용 도서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오니 귀 학교나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교과용 도서를 기증해 주십시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기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 제한 없음.
- ◆기 간 : 연중
- ◆방 법 : 무상 기증. 다만, 희귀본일 경우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 (우) 135-08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한국교과서연구원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 (02) 501-9103~4, Fax : (02) 501-9105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원장